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 과제에 대한 전망

- ▶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박선영(한국체육대·교수)
조남익(광운대·교수)
- ▶ 연구보조원 : 공병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청소년은 현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미래 한국사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창조적 주역이다. 따라서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들이 결코 청소년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되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향후 25년여 후인 2040년까지의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환경들을 미리 전망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미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들에 대해 미리 대비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3~2014년의 2개년에 걸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인 전년도 2013년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트렌드를 추출하여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고, 2차년도인 올해 2014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조사자로, 연구 자문위원으로, 또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신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에 일말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40년까지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 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전년도인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 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고, 둘째, 올해 2014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올해 2014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첫째, 26가지 환경트렌드 변수들을 추출한 후 전문가조사를 통해 26가지 환경트렌드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전망을 분석, 단일시나리오로 제시하였고, 둘째,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복지·건강, 안전 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로 나눠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셋째,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뉴질랜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미래사회 청소년정책의 비전은 ‘행복한 청소년, 선진미래 창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기회균등 강화, 공동체성 강화, 신뢰 강화, 소통합리성 증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는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 청소년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등)의 실질적 활성화,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 신뢰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의 일곱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트렌드 분석, 시나리오 분석,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 전망, 미래 청소년정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및 내용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진단 하에, 청소년을 둘러싼 향후 2040년까지의 중장기 미래사회 환경을 미리 전망해봄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환경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3년~2014년까지의 2개년에 걸쳐, 1차년도인 전년도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의 트렌드를 전망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2차년도인 올해 2014년에는 1차년도 연구를 이어받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 콜로키움 개최 : 미래 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 미래연구 전문가이신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님을 모시고 2014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연구방법론에 대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음.
-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 분석,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의 특성 분석을 위해 여러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아울러,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를 추출해내기 위해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를 전체, 정책분야별로 나눠 평균분석으로 재분석하였음.
- 전문가조사 :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단일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해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26가지 청소년환경트렌드 변수들간의 상호인과관계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자문 :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에 맞는 미래 청소년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자문회의, 정책협의회, 전문가워크숍 등 여러 형태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음.

3. 연구결과

-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를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추출하였음. 이어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앞에서 추출한 26가지 환경트렌드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해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트릭스 표에 의한 단일시나리오로 제시하고, 26가지 환경트렌드 변수들이 각각 어떠한 환경트렌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국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정책들을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로 나눠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분석결과,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의 전 정책분야에 걸쳐 부서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뉴질랜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사회통합, 민주적 권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 등을 중심적인 정책으로 계획, 수행하고 있었음.

4. 정책적 제언

- 미래사회 청소년정책의 비전은 ‘행복한 청소년, 선진미래 창조’로 설정하였음.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기회균등 강화, 공동체성 강화, 신뢰 강화, 소통합리성 증대를 제시하였음. 그리고 다음의 일곱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첫째,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 :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여 청소년들의 성장발달 과정에서의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였음.
- 둘째, 청소년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등)의 실질적 활성화 :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나눔활동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시하였음.
- 셋째,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 :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넷째, 신뢰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청소년들의 예견되는 저신뢰 상황을 타개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방안으로 신뢰교육을 제시하였음.
- 다섯째,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화 기제 중의 하나인 또래관계가 미래사회에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 좋은 친구 교육을 제시하였음.
- 여섯째,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세대간의 갈등 및 통합의 약화가 전망되어 세대간 이해 및 소통증진 교육을 제시하였음.
- 일곱째,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 :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래사회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교육을 제시하였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1) 콜로키움 개최	7
2)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8
3) 전문가 FGI	8
4) 전문가 조사	9
5) 전문가 자문	9
II. 이론적 논의	11
III.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19
1.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	21
2.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	36
IV.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	77
1. 복지·건강	79
2. 안전보호·비행범죄	86
3. 교육·진로직업	96
4. 활동·권리참여	103
V.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	113
1. 유럽연합	115
2. 유럽평의회	126

3. 뉴질랜드	132
4. 일본	135
VI. 결론	139
1. 연구의 요약	141
2. 정책적 제언	143
참고문헌	153
부 록	161
부록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복지/건강)	163
부록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안전·보호·비행·범죄)	178
부록3.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교육/진로·직업)	193
부록4.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활동/권리·참여)	208

표 목차

〈표 Ⅰ-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4
〈표 Ⅲ-1〉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전체	23
〈표 Ⅲ-2-1〉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복지·건강	24
〈표 Ⅲ-2-2〉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안전보호·비행범죄	25
〈표 Ⅲ-2-3〉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교육·진로직업	26
〈표 Ⅲ-2-4〉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활동·권리참여	27
〈표 Ⅲ-3-1〉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복지	28
〈표 Ⅲ-3-2〉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건강	29
〈표 Ⅲ-3-3〉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안전보호	30
〈표 Ⅲ-3-4〉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비행범죄	31
〈표 Ⅲ-3-5〉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교육	32
〈표 Ⅲ-3-6〉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진로직업	33
〈표 Ⅲ-3-7〉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활동	34
〈표 Ⅲ-3-8〉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의 추출-권리참여	35
〈표 Ⅲ-4〉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변수간 관계-단일시나리오 분석결과	37
〈표 Ⅳ-1〉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복지정책	81
〈표 Ⅳ-2〉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건강정책	85
〈표 Ⅳ-3〉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안전보호정책	89
〈표 Ⅳ-4〉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비행범죄정책	94
〈표 Ⅳ-5〉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교육정책	97
〈표 Ⅳ-6〉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진로직업정책	100
〈표 Ⅳ-7〉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활동정책	105
〈표 Ⅳ-8〉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권리참여정책	110

〈표 V-1〉 단기 정책아젠다와 하위 정책영역	118
〈표 V-2-1〉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교육	119
〈표 V-2-2〉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고용	119
〈표 V-2-3〉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120
〈표 V-2-4〉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보건과 스포츠	121
〈표 V-2-5〉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참여	122
〈표 V-2-6〉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사회적 포섭	123
〈표 V-2-7〉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자원봉사	124
〈표 V-2-8〉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청소년과 세계	124
〈표 V-3〉 AGENDA 2020 미래 청소년 정책 개요	127

그림 목차

【그림 II-1】 미래연구절차의 예 : 스웨덴 미래연구소인 Kairos의 미래연구절차	15
---	----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최근 수년간 가족구조의 변화, 여전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불확실한 취업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측면의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오는 중장기 미래사회 환경을 전망해 봄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통계청, 2012; 이종원, 이경상, 김기현, 2012;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3년~2014년 2개년에 걸쳐 26년~27년 후인 2040년까지의 환경변화와 청소년정책을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2013년~2014년의 전체 연구기간 중 1차년도인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의 트렌드에 대한 전망적 연구를 수행하고, 2차년도인 2014년에는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 과제에 대한 전망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연도별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의 <그림 I-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차년도인 2013년에는 첫째,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메가트렌드와 미시환경트렌드로 나눠 추출, 제시하였고, 둘째, 제시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해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두 차원에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셋째,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넷째, 1차년도 연구결과 제시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함의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1)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1차년도 (2013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 제시를 위한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 마련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정책자문회의 개최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제시
2차년도 (2014년)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 과제에 대한 전망	•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및 특성 분석 •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의 특성 분석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회의 개최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 마련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에 대한 워크숍 개최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 제시

* 출처 : 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pp. 6.에 제시된 표의 내용을 일부 수정.

1차년도 연구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사회환경을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의 6차원으로 나눈 후 각 차원에서 6가지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

둘째,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5측면으로 나뉜 앞의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관련된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각 미시환경별로 추출된 미시환경트렌드들을 다음과 같다.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셋째, 앞에서 추출, 제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미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두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 실시결과,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 모두 미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넷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에서 제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을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 트렌드 전망의 최종결과로 제시하고 간략하게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이상의 1차년도 연구결과를 이어서, 2차년도인 올해 2014년도에서는 첫째, 1차년도 연구결과 추출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거쳐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한국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셋째, 주요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넷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1~2차년도의 연구결과 제시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 과제는 다가오는 미래 청소년 환경 중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기존에 어떤 미래전망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또 지금 진행 중인지 등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미래전망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래 청소년환경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지를 전망하기 위해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작업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쳐 실시되었다.

첫째, 1차년도 연구에서 추출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들을 대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를 추출해내었다. 우선 주요 변수의 추출에 앞서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FGI를 실시하여 1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어 1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조사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둘 다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5점 척도로 측정)의 측정결과를 합산하여 6.0이상 나온 변수들을 전부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추출하였다.

둘째, 앞에서 추출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들간의 관계가 향후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들간의 관계는 주요 변수들간의 매트릭스표를 만든 후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간의 상호영향관계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은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로 나눠 실시하였다. 이 정책분야별 청소년정책의 특성 분석결과는 향후 미래 환경변화 전망에 비춰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할 때 참고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다음 이 연구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특성 검토시에는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기 설정하고 있는 나라들

중 우리나라보다 사회문화적인 여건이 앞선 선진국과 사회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나라 모두 포함해서 검토하였다. 이 단계의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의 특성 분석결과는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할 때 외국에서는 미래 청소년정책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볼 때 참고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한국 청소년정책 특성 분석,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특성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에 맞는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정책자문회의, 정책협의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콜로키움 개최

미래 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고 공유하기 위해서 원내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미래 연구방법론에 대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콜로키움은 2014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연구방법론에 대한 전문가인 국민대 최항섭 교수님을 초청해서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이란 주제로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의 내용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발표일시 : 2014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12시 10분
- 발 표 자 : 최항섭 교수(국민대 사회학과)
- 발표주제 :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 발표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

2)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우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참고할 목적으로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역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참고할 목적으로 미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주요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문헌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년도인 1차년도 연구에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설정한 미래 청소년환경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 중에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를 추출해내기 위해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는 연구진이 만든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안)에 대해 미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두 측면에 대해 각 분야별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료이다(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 올해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를 추출해내기 위한 자료로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재분석시에는 우선 전체적으로 평균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4개 정책 분야별로 평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복지, 건강, 안전보호, 비행범죄, 교육, 진로직업, 활동, 권리참여 8개 정책분야별로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3) 전문가 FGI

시나리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들로부터 주요 변수를 추출해내기 전에 1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질적 검토를 위해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FGI는 1차년도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결과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질적 검토를 실시하여 전문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4) 전문가 조사

시나리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1차년도 전문가 조사결과 자료를 재분석하여 주요 변수를 추출한 이후, 시나리오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추출한 주요 변수들간의 관계를 측정해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해, 10월에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도록 선정하였고,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현장 전문가 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다음, 26가지 변수들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눠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한 표에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0,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로 직접 기입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최종 조사결과를 제시할 때는 각 독립변수-종속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측정값의 평균을 낸 다음, 1.00미만의 값은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간주하여 0으로 코딩하였고 1.00이상의 값들만 제시하여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하였다.

5) 전문가 자문

우선 실행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연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자문 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에 대한 재분석과 새롭게 실시한 전문가조사를 바탕으로 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청소년정책 특성 분석,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특성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에 맞는 미래 청소년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문회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협의회,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워크숍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정책자문회의, 정책협의회, 전문가워크숍에서 개진된 여러 의견은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제 Ⅱ 장

이론적 논의

1. 이론적 논의

제 II 장 이론적 논의²⁾

1. 이론적 논의

과거나 현재에 대한 연구가 이미 발생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미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연구는 기 발생된 현상의 실태를 기술한다든지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탐구한다든지 하는 연구가 아니라 아직 발생되지 않은 현상의 향후 미래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현상의 인과관계는 향후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최대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추정해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연구자들은 미래연구에서 미래개념의 의미를 ‘있음직한 미래’, ‘있을 수 있는 미래’, ‘바람직한 미래’ 등 여러 가지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한다(Miller, 2003, 하연섭, 2005에서 재인용; 배규한, 2000; 김경동, 2002; 김혜숙, 2005;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여기서 ‘있음직한 미래’는 향후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 미래를 의미하고, ‘있을 수 있는 미래’는 향후 나타날 확률이 높진 않지만 나타날 수 있는 미래를 의미하며, ‘바람직한 미래’는 향후 나타날 확률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원하는 미래를 의미한다(Miller, 2003, 하연섭, 2005에서 재인용; 배규한, 2000; 김경동, 2002; 김혜숙, 2005;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아직 발생되지 않은 현상에 대해 추정을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래 연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있음직한 미래’를 추정한 후 예상되는 여러 난점을 극복하여 사람들이 회구하는 ‘바람직한 미래’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맹용길, 1997; 김혜숙, 2005;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그럼 이러한 목적을 갖는 미래연구의 미래 연구기한은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미래연구의 미래 연구기한 설정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이다.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2)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최대한 타당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40년보다는 30년을, 30년보다는 20년을, 20년보다는 10년을, 10년보다는 5년을 설정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 연구기한의 설정은 특정 주제의 미래 연구에 참여하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최항섭, 2014). 그러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여러 다른 사정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 연구에서의 미래 연구기한 설정은 26년~27년 후인 2040년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미래 연구기한을 204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청소년분야에서 이미 2006년에 2030년을 전망하는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연구(김기현, 장근영, 강홍렬, 2006; 김기현 외, 2007)를 수행한 바가 있고, 둘째, 기 진행된 관련 미래연구들이 통상 30년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래 연구기한을 설정하여(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유현숙 외, 2011)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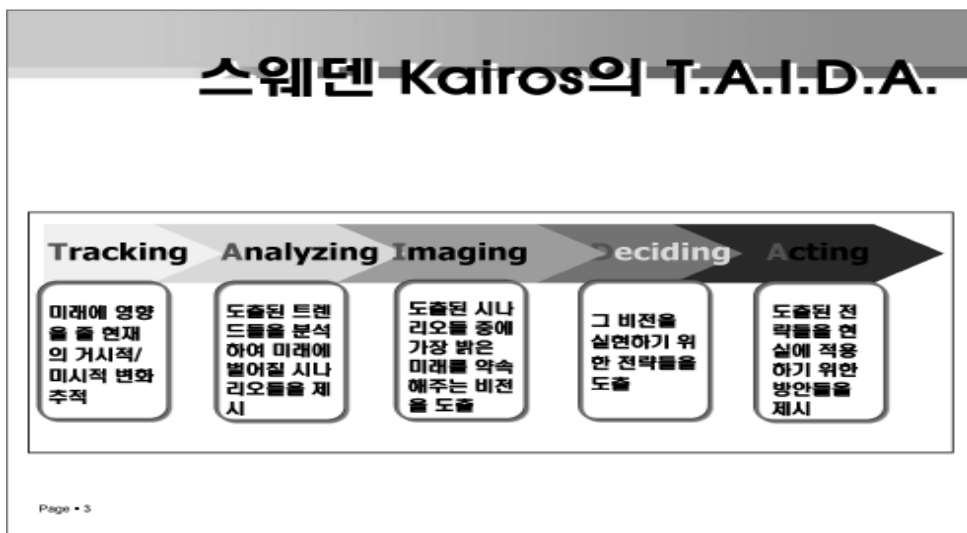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미래연구의 절차는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따라 진행한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최항섭, 2014).

첫째 단계는 환경관찰을 통해 핵심트렌드들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찰대상이 되는 환경을 여러 차원으로 나눠 과거와 현재의 주요 실태를 탐색하고, 나뉘어진 각 환경차원별로 미래에도 지속되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트렌드들을 추출해낸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이때 과거와 현재간의 탐색 거리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미래간의 추정 거리와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추정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최항섭, 2014). 이 단계 핵심트렌드들을 추출하는 작업은 문헌자료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실시하기도 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시하기도 한다(최항섭, 2014).

둘째 단계는 각 환경차원별로 추출된 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추출된 트렌드들이 미래사회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의 측면에서 예측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전망은 주로 전문가조사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시한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셋째 단계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미래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시나리오 방법은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미래 주요 환경변수들의 관계를 추정하여 미래 발생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을 추정해보는 방법이다(배규한, 2000;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이세준, 이윤준, 홍정임, 2008).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앞의 단계를 거친 결과 추출한 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 예측한 바를 가지고 트렌드 변수들을 조합하여 가능한 여러 상황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최항섭, 강홍렬, 장종인, 음수연, 2005; 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최항섭, 2014). 시나리오 분석은 우선 트렌드들 중 발생가능성과 미래변화에서의 중요성 등의 측면에서 주요 변수를 도출해낸 후, 도출해낸 주요 변수들간의 상호영향관계를 전문가토론회나 매트릭스표 등에 의한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측정하며, 주요 변수들간의 상호영향관계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최항섭, 2014). 이때 시나리오 작업은 추출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추출된 변수들 중 최종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불확실한 2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2 \times 2 = 4$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하고, 보통 10개 이내의 변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하며, 변수들이 많아 다중 시나리오 작업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때에는 단일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한다(최항섭, 2014).



【그림 II-1】 미래연구절차의 예 : 스웨덴 미래연구소인 Kairos의 미래연구절차

* 출처 : Mats Lindgren and Hans Bandhold, 2003, Scenario Planning: The Link Between Future and Strategy, pp.47. 최항섭 2014. 미래 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콜로키움 자료집 pp. 3에서 재인용.

넷째 단계는 비전, 전략, 과제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상정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비전, 전략, 과제 등을 수립한다(최항섭, 강홍렬, 장종인, 음수연, 2005; 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최항섭, 2014).

1차년도인 전년도 2013년에는 앞의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환경관찰을 통해 핵심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 우선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을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거시환경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의 둘로 크게 나누었다. 다음으로 거시환경을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의 6차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차원에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6가지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이어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을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 중 미시체계론을 참조하여 (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5측면으로 나누고 각각의 측면에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솔립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의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둘째,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트렌드 전망은 전문가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복지, 건강, 안전·보호, 비행·범죄, 교육, 진로·직업, 활동, 권리·참여 정책분야 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의 미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 모두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2차년도인 올해 2014년에는 셋째 단계와 넷째 단계를 수행하였다. 1차년도 연구결과 추출된 트렌드들을 조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을 추정해보고,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비전,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Ⅲ 장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1.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
2.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

제 III 장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³⁾

1.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1차년도 연구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 도출된 26가지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중에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를 추출하였다.

주요 변수의 추출작업은 26가지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해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두 측면에서 청소년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실시하였다.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는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 모두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5점 척도로 측정(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했기 때문에, 두 측정결과를 합산하여 6.0이상 나온 변수들을 주요 변수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모두 출현가능성과 전체 정책적 중요성을 합산한 점수가 6.0을 넘어,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모두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추출되었다(표 III-1 참조).

메가트렌드 내에서는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합계 8.98),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합계 8.5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합계 8.52),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합계 7.91),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합계 7.54),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합계 7.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시환경트렌드 내에서는 ‘4. 매체환경’(합계평균 8.15), ‘3. 학교환경’(합계평균 8.05), ‘2. 또래환경’(합계평균 7.82), ‘5. 진로환경’(합계평균 7.68), ‘1.가족환경’(합계평균 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메가트렌드인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합계 8.9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시환경트렌드인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3)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증가(합계 8.72)와 메가트렌드인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합계 8.58)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메가트렌드인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합계 8.52)와 미시환경트렌드인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합계 8.28),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합계 8.28)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시환경트렌드인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합계 8.19),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합계 8.12)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시환경트렌드인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합계 8.07),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합계 7.98),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합계 7.96), 메가트렌드인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합계 7.91), 미시환경트렌드인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합계 7.84),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합계 7.78),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합계 7.75),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합계 7.69),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합계 7.69),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합계 7.67),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합계 7.65),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합계 7.59),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합계 7.55), 메가트렌드인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합계 7.54), 미시환경트렌드인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합계 7.41), 메가트렌드인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합계 7.35),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합계 7.25),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합계 6.9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적 중요성을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의 4가지 정책 분야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서도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모두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합산한 점수가 6.0을 넘어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추출되었고(표 III-2-1 ~ 표 III-2-4 참조), 정책적 중요성을 복지, 건강, 안전보호, 비행범죄, 교육, 진로직업, 활동, 권리참여의 8가지 정책분야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서도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모두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합산한 점수가 6.0을 넘어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추출되었다(표 III-3-1 ~ 표 III-3-8 참조).

표 III-1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전체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전체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32	8.98	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	7.91	11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77	7.35	2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88	7.54	20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44	8.52	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25	8.58	3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67	7.25	23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7	7.78	13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3.83	3.72	7.55	19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28	8.28	5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07	7.65	17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인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9	7.67	1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8	6.96	24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19	8.19	6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84	7.59	18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03	7.69	15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37	8.28	5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92	7.75	14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4	8.12	7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14	8.72	2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9	7.98	9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84	7.84	12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16	8.07	8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78	7.69	15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3.96	7.96	10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75	7.41	21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2-1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복지·건강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복지·건강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29	8.95	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12	8.03	7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66	7.24	22
	4. 사회인식 : 자선위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58	7.24	22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58	8.66	2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3.96	8.29	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66	7.24	22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66	7.74	13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3.83	3.79	7.62	16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33	8.33	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17	7.75	10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4	7.62	1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79	6.95	26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	8	8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75	7.5	20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04	7.7	14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	7.91	9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75	7.58	18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3.67	7.75	10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3.83	8.41	3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25	7.33	21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58	7.58	18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21	8.12	6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75	7.66	15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3.75	7.75	10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46	7.12	25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2-2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안전보호·비행범죄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안전보호· 비행범죄 정책적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5	9.16	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	7.91	1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7	7.28	2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4	7.66	1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46	8.54	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29	8.62	3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62	7.2	26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5	7.58	20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3.83	3.54	7.37	2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29	8.29	7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16	7.74	16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87	7.95	10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4.16	7.32	22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2	8.2	8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96	7.71	17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16	7.82	14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29	8.2	8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79	7.62	19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33	8.41	5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25	8.83	2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79	7.87	13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79	7.79	15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45	8.36	6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33	7.24	2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3.92	7.92	11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58	7.24	24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2-3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교육·진로직업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교육·진로 직업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25	8.91	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3.75	7.66	20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4.04	7.62	2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4.04	7.7	1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58	8.66	3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29	8.62	4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54	7.12	25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66	7.74	16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3.83	3.91	7.74	16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46	8.46	6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12	7.7	18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41	7.49	23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62	6.78	26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29	8.29	9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66	7.41	24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	7.66	20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62	8.53	5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4.33	8.16	10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8	8.16	10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33	8.91	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4.25	8.33	8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96	7.96	1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3.96	7.87	15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4.08	7.99	12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4.41	8.41	7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4.25	7.91	14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2-4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활동·권리참여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활동·권리 참여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25	8.91	1
	2. 개인인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12	8.03	1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71	7.29	25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92	7.58	19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16	8.24	7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46	8.79	2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87	7.45	22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4	8.08	9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3.83	3.66	7.49	2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04	8.04	10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3.83	7.41	23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인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4	7.62	18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62	6.78	26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29	8.29	6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4	7.75	16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3.91	7.57	20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58	8.49	4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83	7.66	17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8	8.16	8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16	8.74	3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4.33	8.41	5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4.04	8.04	10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증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04	7.95	13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96	7.87	1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3.79	7.79	15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71	7.37	24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3-1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복지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복지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75	9.41	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08	7.99	11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42	7	25
	4. 사회인식 : 저성장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75	7.41	22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75	8.83	2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	8.33	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58	7.16	24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83	7.91	1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3.83	3.75	7.58	17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42	8.42	3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17	7.75	14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	7.58	17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67	6.83	26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25	8.25	6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 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75	7.5	20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	7.66	16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3.92	7.83	13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4.17	8	9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3.67	7.75	14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3.83	8.41	4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 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42	7.5	20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 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58	7.58	17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증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17	8.08	7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4.17	8.08	7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4	8	9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67	7.33	23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3-2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건강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건강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3.83	8.49	2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17	8.08	7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91	7.49	19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42	7.08	2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42	8.5	1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3.92	8.25	4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75	7.33	20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5	7.58	15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3.83	3.83	7.66	13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25	8.25	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17	7.75	9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인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8	7.66	13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92	7.08	24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3.75	7.75	9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75	7.5	17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08	7.74	12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09	8	8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33	7.16	2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3.67	7.75	9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3.83	8.41	3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08	7.16	2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58	7.58	15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25	8.16	6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33	7.24	2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3.5	7.5	17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25	6.91	26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3-3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안전보호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안전보호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33	8.99	2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08	7.99	11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5	7.08	26
	4. 사회인식 : 자진로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67	7.33	21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5	8.58	3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17	8.5	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58	7.16	24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58	7.66	18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3.83	3.5	7.33	2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17	8.17	9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25	7.83	13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75	7.83	13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4	7.16	24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33	8.33	6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75	7.5	19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08	7.74	17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42	8.33	6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4	7.83	13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5	8.58	3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42	9	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92	8	10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75	7.75	16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33	8.24	8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5	7.41	20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3.92	7.92	1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67	7.33	21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3-4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비행범죄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비행범죄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67	9.33	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3.92	7.83	15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91	7.49	20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4.33	7.99	11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42	8.5	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42	8.75	2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67	7.25	24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42	7.5	19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3.83	3.58	7.41	22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42	8.42	6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08	7.66	18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4	8.08	8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4.33	7.49	20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08	8.08	8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4.18	7.93	1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25	7.91	14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17	8.08	8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58	7.41	2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17	8.25	7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08	8.66	3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67	7.75	17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83	7.83	15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58	8.49	5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17	7.08	26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3.92	7.92	13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5	7.16	25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3-5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교육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교육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42	9.08	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3.83	7.74	19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4.17	7.75	18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4.33	7.99	1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75	8.83	2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42	8.75	4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58	7.16	25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83	7.91	16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3.83	4.08	7.91	16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42	8.42	7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08	7.66	20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인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	7.58	21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58	6.74	26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42	8.42	7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 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83	7.58	21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33	7.99	14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67	8.58	5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4.33	8.16	9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8	8.16	9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25	8.83	2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 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4.42	8.5	6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 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4	8	1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17	8.08	11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67	7.58	2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4.08	8.08	11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83	7.49	24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3-6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진로직업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진로직업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08	8.74	3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3.67	7.58	17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92	7.5	20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75	7.41	21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42	8.5	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17	8.5	4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5	7.08	25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5	7.58	17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3.83	3.75	7.58	17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5	8.5	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17	7.75	1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33	7.41	21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67	6.83	26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17	8.17	10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5	7.25	24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3.67	7.33	2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58	8.49	7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4.33	8.16	11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8	8.16	11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42	9	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4.08	8.16	11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92	7.92	14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3.75	7.66	16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4.5	8.41	8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4.75	8.75	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4.67	8.33	9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3-7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활동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활동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17	8.83	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33	8.24	7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4	7.58	17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92	7.58	17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08	8.16	8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42	8.75	2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75	7.33	20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83	7.91	14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3.83	3.5	7.33	20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	8	10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3.58	3.83	7.41	19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25	7.33	20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92	7.08	25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33	8.33	6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 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4.17	7.92	1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	7.66	16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67	8.58	3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42	7.25	24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8	8.16	8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	8.58	3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 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4.33	8.41	5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 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92	7.92	12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08	7.99	11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4	7.91	1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3.33	7.33	20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42	7.08	25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III-3-8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관리참여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관리참여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33	8.99	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3.92	7.83	16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42	7	25
	4. 사회인식 : 자선위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92	7.58	20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25	8.33	6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5	8.83	3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4	7.58	20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4.17	8.25	7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3.83	3.83	7.66	18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08	8.08	12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3.83	7.41	24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인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83	7.91	14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33	6.49	26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25	8.25	7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83	7.58	20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3.83	7.49	2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5	8.41	4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4.25	8.08	1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8	8.16	11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33	8.91	2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4.33	8.41	4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4.17	8.17	10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	7.91	14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92	7.83	16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4.25	8.25	7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4	7.66	18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

다음으로 앞의 26가지 트렌드들에서 추출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26개 트렌드 변수들간의 관계가 향후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26개 트렌드 변수들간의 관계는, 26개 트렌드 변수들간의 매트릭스 표를 만든 후,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향후 미래의 26개 트렌드 변수들간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전문가는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로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현장 전문가 분들을 고르게 포괄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조사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은 다음, 이들 변수들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눠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한 표의 빈 칸에 본인이 생각하는 값을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빈 칸에 기입하는 값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0,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로 측정하였다. 전문가조사의 최종 조사결과는 전문가들의 응답을 측정한 값의 평균을 낸 후, 1.00미만의 값은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0으로 코딩하고, 1.00이상의 값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4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수행한 미래 청소년환경 26개 트렌드 변수들간의 향후 미래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단일시나리오로 나타낸 것이다.

표 III-4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단일시나리오 분석결과

독립	종속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M1			1.44	0	0	1.02	0	1.56	1.84	1.71	1.13	1.21	1.4	0
M2	1.28			1.47	1.54	1.24	1.31	1.47	1.6	1.71	1.1	1.24	1.52	1.48
M3	0	1.17			1.08	0	1.31	1	1.05	1.15	0	0	0	0
M4	0	1.35	1.07			1.4	1.21	1.28	1.1	0	1.4	1.44	1.05	0
M5	0	1.3	1.05	1.72			0	1.15	1.07	1.02	1.81	1.76	1.13	0
M6	0	1.15	1.27	1.2	0			0	0	0	0	0	0	1.02
F1	1.2	1.42	0	1.35	0	0			1.7	1.67	0	1.29	1.62	1.64
F2	1	0	0	0	0	0	0			1.47	0	0	1.13	1.16
F3	1.3	1.4	1.1	0	0	0	1.3	1.67			0	0	1.37	1.35
F4	0	1	0	1.52	1.74	0	1.07	0	0			1.81	0	0
F5	0	0	0	1.45	1.37	0	1.27	0	0	1.17			0	1.13
F6	1.35	1.42	0	1.1	0	0	1.61	1.52	1.6	0	1.1			1.45
F7	1	1.4	0	1.1	0	0	1.75	1.53	1.61	1	1.52	1.62		
P1	0	0	0	1.31	1.19	0	0	0	0	1.17	1.04	0	0	
P2	0	1.36	1.31	1.07	0	1.24	0	0	0	0	1.05	0	0	
P3	0	1.09	0	1.53	0	0	0	0	0	0	1.46	0	1.02	
S1	0	1.31	1	1.39	1	1.04	1.21	0	0	1.09	1.36	1.29	1.19	
S2	0	1	0	1.6	1.34	0	0	0	0	1.65	1.51	0	0	
S3	0	1.26	0	1.58	1.41	0	1.12	0	0	1.36	1.43	0	0	
I1	0	1.24	1.34	0	0	1.78	1.07	0	0	0	0	0	1.09	
I2	0	0	1.22	0	0	1.24	0	0	0	0	0	0	0	
I3	0	0	1.27	0	0	1.26	0	0	0	0	0	0	0	
I4	0	1.25	1.39	1.47	0	1.27	1.05	0	0	0	1.24	0	1	
C1	0	0	0	0	0	0	0	0	0	0	0	0	0	
C2	1.07	1.14	1.04	1.41	1.53	0	1.46	1.17	1.17	1.43	1.43	1.34	1.02	
C3	0	0	0	1.19	1.17	0	0	0	0	1.31	1.21	0	0	

척도 : (-2) 강한 부적영향, (-1) 약한 부적영향, (0)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침, (1) 약한 정적영향
(2) 강한 정적영향

표 III-4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단일시나리오 분석결과

종속 독립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M1	0	0	0	1.1	0	0	0	0	0	0	1.3	1.35	0
M2	0	1.45	0	1.47	0	1.37	1.43	1.02	1.12	1.42	0	1	0
M3	0	1.42	1.1	1.2	0	1	1.12	1.51	1.48	1.43	0	0	0
M4	1.45	1.17	1.32	1.38	1.67	1.35	0	0	0	1.3	0	1.3	1.12
M5	1.3	0	1.32	1.23	1.77	1.52	0	0	0	1.2	1.2	1.67	1.25
M6	0	1.66	0	1.1	0	0	1.76	1.67	1.67	1.37	0	0	0
F1	0	0	0	1.3	0	0	0	0	0	0	0	1.32	0
F2	0	0	0	0	0	0	0	0	0	0	0	0	0
F3	0	0	0	1	0	0	0	0	0	0	0	0	0
F4	1.15	1.05	1.37	1.25	1.62	1.2	0	1	1.05	1.35	1.17	1.25	0
F5	1.05	1.25	1.52	1.25	1.38	1.1	0	0	1.02	1.47	1.07	1.07	1.05
F6	0	0	0	1.3	0	0	0	0	0	0	0	1.07	0
F7	0	1.17	1.15	1.35	0	0	0	0	1.15	1.05	0	0	0
P1		0	1.23	0	1.2	1.74	0	0	0	0	0	0	0
P2	0		1.41	1.36	0	0	1.36	1.47	1.58	1.41	0	0	0
P3	1.05	1.28		1.73	0	1.13	0	0	0	1.51	0	0	0
S1	1.35	1.3	1.64		0	1.31	0	0	0	1.61	0	0	0
S2	1.07	0	1.02	1.07		1.13	0	0	0	1.07	0	0	0
S3	1.71	0	1.15	1.12	1.02		0	0	0	1.1	0	1.02	0
I1	0	1.41	0	0	0	0		1.73	1.86	1.52	0	0	0
I2	0	1	0	0	0	0	1.5		1.76	1.18	0	0	0
I3	0	1.28	0	0	0	0	1.44	1.63		1.26	0	0	0
I4	0	1.28	1.53	1.35	0	1.1	1.12	0	1.15		0	0	0
C1	0	0	0	0	0	0	0	0	0	0		0	0
C2	0	0	0	1.13	1.48	1.33	0	0	0	1.21	1.28		1.56
C3	0	0	0	0	1.02	1	0	0	0	0	1.02	1	

척도 : (-2) 강한 부적영향, (-1) 약한 부적영향, (0)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침, (1) 약한 정적영향
(2) 강한 정적영향

분석결과에 나타난 복잡한 인과관계를 모두 제시할 수는 없지만, 특정의 청소년환경 변수가 여러 청소년환경변수들 중 어떤 청소년환경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청소년환경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메가트렌드 변수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양극화사회와 위험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 경제적 역량강화 필요 증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메가 트렌드	2. 개인인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증가(M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메가트렌드 변수인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정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2. 개인인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 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 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메가트렌드 변수인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 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 위의 증가(I4)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 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메가트렌드 변수인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 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 사회인식 : 저신뢰 사회와 갈등 증가(M4)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메가트렌드 변수인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인식 및 기능의 약화(F6)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4)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 사회와 위험 증가(M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메가트렌드 변수인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미시 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 증가’, ‘기다리는 행위거부, 의견쏠림현상,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 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다문화 포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포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포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포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 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 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메가 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인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약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 의 약화(S1)	메가 트렌드	2. 개인인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 위의 증가(I4)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3. 학교환경 : (3)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 (S3)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1)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미시 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 적 또래관계의 강화(P2)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 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 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 력행위의 증가(I4)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네트워크 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4. 매체환경 : (2) 정보 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환경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 매체환경 : (2) 정보 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I3)	메가 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 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I3)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I4)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솔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메가트렌드 변수와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모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메가 트렌드	—
	미시 환경 트렌드	—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 행위의 증가(I4)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미시환경트렌드 변수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는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의 영향을 받고, 미시환경트렌드 변수 중에서는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독립변수	구분	종속변수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미시환경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제 IV 장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

1. 복지·건강
2. 안전보호·비행범죄
3. 교육·진로직업
4. 활동·권리참여

제 IV 장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⁴⁾

1. 복지·건강

1) 복지정책

청소년 복지정책은 과거의 제도적 복지의 관점을 넘어 오늘날에는 선제적,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2104년 청소년 복지정책의 경우에도 빈곤의 해결에 관한 정책보다는 다문화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 등의 문제에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수계층 청소년 복지사업 확대이다. 특수계층 청소년 즉, 다문화, 이주배경, 북한이탈, 한민족 청소년 등에 관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4)는 특히 다문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먼저,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언어교육, 부모교육, 다문화가족자녀(만3세~만10세 미만)에게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감수성 증진·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친선대사, 통역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들의 해외체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도 강화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2014)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 어울림 교육 강화와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서는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확대·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4).

4) 이 장은 조남익 교수(광운대)가 집필하였음.

통일부(2014)는 늘어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맞춤형 교육 확대와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2014) 역시 교과부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통일부, 2014; 법무부, 2014).

이 외에도 국방부(2014)의 다문화장병 및 가족 참여 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체육관광부(2014)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등은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을 위한 사업에 다양한 부처가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국방부, 2014; 문화체육관광부, 2014).

둘째,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 사업 확대이다. 위기 청소년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가족해체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가정의 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공공 서비스의 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미혼모부자 가정에 대한 위기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 등 가정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200개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동반자 서비스와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2014)는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4). 이와 같이 위기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기로부터 삶의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청소년 복지 관련 지원체계 강화이다.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비스 확대와 필수 연계 기관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고,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의 해소와 실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보건복지부(2014)에서는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동에게 1인당 연간 480시간의 돌봄서비스와 부모에 대한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는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연간 가구당 10만원) 제공,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이와 같은 청소년 복지 정책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변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IV-1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복지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 희망카드 (Youth Opportunity Card) 도입	각종 할인제 및 청소년증을 통합한 「청소년희망카드(가칭)」 도입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다문화 감수성 증진·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확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조사(3년 단위) 실시 다문화 인식 진단도구의 개발 및 기준 마련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친선대사, 통역요원 등으로 활용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교육, 부모-자녀 활동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자녀(만3세~만10세 미만)에게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해외체험 프로그램 강화,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중·일 청소년간 교류 강화 해외 한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아동·청소년 업무지원 협약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발굴 및 관련 서비스 연계 진로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양성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미혼모부자 가정에 대한 위기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	전국 200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청소년 동반자 확대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일탈 위기 청소년 대상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지원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	고위기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무료 건강진단사업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확대	CYS-Net을 연도별 확대를 통한 서비스 수혜 청소년 확대 및 위기 수준 감소 CYS-Net 연계망의 필수 구성 기관 인 필수연계 기관 운영 활성화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이혼가정 등 취약가정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가족상담 지원 가족봉사단 운영 활성화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
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동에게 1인당 연간 480시간의 돌봄서비스 교육·문화·가족상담·부모자조모임·정보제공 등 휴식 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후 지원 기능 강화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시설 특성에 맞는 지원 다양화 및 운영역량 강화
교육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다문화 어울림 교육 강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강화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 강화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 확대·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자립 지원 강화	탈북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 확대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도모
법무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 강화	교과부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 강화
국방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 강화	장병 대상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다문화장병 및 가족 참여 기획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문화예술프로그램·국내여행 등 문화향유 기회 제공 문화누리카드(연간 가구당 10만원) 1인당 월 1강좌, 7만원 이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여성가족부(2014), 보건복지부(2014), 교육부(2014), 통일부(2014), 법무부(2014), 국방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복지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2) 건강정책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지나친 학습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영양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체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게임 중독이나 정신적 문제, 약물중독 등의 새롭게 나타나는 건강의 위험요소와 더불어 청소년 비만 등 건강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가정과 사회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2014년 부처별 청소년 건강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건강 관련 지표 개발 및 적용이다.

여성가족부(2014)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표준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건강증진 가이드라인 보급을 위한 건강실태 현황 파악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별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건강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보건복지부(2014)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를 산출하여 청소년 건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교육부(2014)에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조기진단 및 악화방지를 위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4학년, 중·고 1학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인 개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교육부, 2014).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지표 개발 및 적용은 구체적인 개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임에는 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이나 방식 등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는 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따른 과도한 일반화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이다.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2014)에서는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입원치료 하는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복귀시의 학업공백 및 학교부적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정신건강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해 학교와 병원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4).

여성가족부(2014)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2014)는 학생정서 및 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관리가 필요한 취약학교에 집중지원을 위한 교육청 기반의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학교-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 2014).

셋째, 약물 및 위험환경의 접촉에 대한 예방·치료 정책의 확대이다.

우선 청소년 흡연·음주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흡연과 음주의 폐해에 대해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보건복지부, 2014).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2014)에서는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절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정화구역 주류판매업소 및 지자체 행사 청소년주류불법판매를 감시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음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알코올상담센터에 등록하게 하여 치료 및 재활 관련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다양한 중독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4).

교육부(2014)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연1회 이상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학교를 운영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교육부, 2014).

넷째,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정책의 확대이다. 지나친 학습과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청소년 수면부족과 전반적인 체력의 약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건강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교육부(2014)는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심야학원 교습시간 제한 지도·감독 등 관리를 강화하였고, 보건복지부(2014)는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한 비만예방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교육부, 2014; 보건복지부,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2014) 역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내실화와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 유도 및 올바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영양표시 확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이와 더불어 평소 생활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2014)에서는 청소년 체력증진 기반조성 연구개발 및 청소년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전국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토요 스포츠데이(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표 IV-2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건강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 체력 강화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보급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강화	청소년 흡연·음주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매체활용 대국민 홍보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
보건복지부	비만 예방	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2~2016)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균형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한 비만예방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 지원 강화	국립정신병원 중심 정신건강 병원학교 운영 확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실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 산출
	청소년 정신건강 개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신건강 위기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구축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 강화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절주교육 전문가 양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교육 학교정화구역 주류판매업소 감시 및 지자체 행사 청소년주류불법판매 감시 건전음주 문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지원 사업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지원 및 선도·보호 강화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해 문제음주 청소년을 등록하여 치료 및 재활 관련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다양한 중독증상 예방·관리
교육부	청소년 체력 강화	교육지원청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개최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건강지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지속관리가 필요한 취약학교 중심의 집중지원을 위한 교육청 기반의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운영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초1·4학년, 중·고 1학년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및 추구관리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심야학원 교습시간 제한 지도·감독 등 관리 강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 강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연1회 이상 흡연·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음주 예방교육 실시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학교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청소년 체력 강화	청소년 체력 증진 기반 조성 연구개발 종목별 프로그램 교실 운영을 통한 청소년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전국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토요 스포츠데이(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운영 확대
농림축산 식품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조성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식생활교육 인 프라 구축 식생활교육 범국민 활성화를 위한 체점관운영 및 캠페인 등 홍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지자체 및 학교 단위 식생활교육 확대
식품의약품 안전처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 환경 조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내실화 아동·청소년 영양식생활 교육 확대 영양표시 확대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여성가족부(2014), 보건복지부(2014), 교육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농림축산식품부(2014), 식품의약품안전처(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건강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2. 안전보호·비행범죄

1) 안전보호정책

2014년 중앙부처의 청소년 안전·보호정책은 청소년 정책의 영역 중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다. 청소년관련 유해환경과 비행에 기인한 안전과 보호의 문제에서부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인터넷 및 미디어 중독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4년 부처별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안전·보호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생활환경 안전·보호 정책의 구체화이다.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유해환경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해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4)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 및 감시활동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보건복지부(2014)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여성가족부, 2014; 보건복지부, 2014).

이외에도 교육부(2014)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지원 및 선도보호 강화 등 다양한 부처에서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보호 정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교육부, 2014).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청소년 안전·보호정책이 다른 청소년정책에 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맞춤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실천적인 사업 영역을 찾아 지속적인 지역화, 조직화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법을 찾아낸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또래 집단을 활용한 상담이나 프로그램 등을 보급하는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 2104)이 확대되는 것은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는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초점을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청소년 활동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호정책이다. 학교공부 이외에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등의 시행으로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전문 시설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의미있는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우선 청소년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특히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인원이 일정규모 이상(150명)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대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4). 이러한 제도 역시 청소년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2014)에서는 교육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 2014).

안전행정부(2014)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놀

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3대 안전관리의무 이행 추진, 노후 어린이놀이기구 개선사업을 통한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 초등학교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시행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셋째, 인터넷 및 미디어 등에 대한 안전·보호정책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의 확대는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조남익, 2012). 긍정적인 변화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도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에서는 미디어와 스마트 기기에 관한 정책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4)는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하여 치료 및 재활관련 관리를 시행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중독정도가 심각할 경우 정서적·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통해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독 이전에 예방적 개입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교육 및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등 인터넷 관련 중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2014)에서는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확대 및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2014)에서도 생애주기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4; 미래창조과학부, 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역시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등에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해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미디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2014)에서도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게 청소년 스마트폰 계약시 음란물 차단 SW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하고, PC 및 스마트폰용 필터링 프로그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넷째, 예측되는 문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보호정책이다.

몇 해 전부터 걸 그룹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연령의 연예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민간자율정화 지원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의 성문제에서도 대중매체와 인터넷,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음란물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청소년들이 성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정책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관리 및 재교육, 취업제한 등의 제도를 강화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유해매체(인터넷, 음반 등)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 대한 상대방 본인인증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해 약물이나 흡연청소년에 대한 선호보호정책도 강화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보건복지부(2014)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정신보건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해체나 지나친 입시스트레스, 상대적 빈곤감 등으로 인해 사회부적응,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정신적 문제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접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에서도 대중매체의 폭력성과 선정성 등이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폭력성, 선정성, 언어의 부적절성 등)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표 IV-3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안전보호정책

주관부처	주요 사업	사업 내용
여성가족부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또래상담 운영학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강화	“매체물에 등장 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등 민간자율정화 지원
	도시계획 수립시 유해업소 최소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 및 감시활동 강화

주관부처	주요 사업	사업 내용
	확대 추진	관련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정책집행 협력 강화 성범죄자 관리 및 재교육, 취업 제한 등의 제도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	청소년유해환경 점검(출입제한 업소 등) 청소년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침해행위 예방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 및 쉼터연계 등 보호조치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 활지원 및 선도·보호강화	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재활·지원사업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청소년 유해매체(인터넷, 음반 등)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감 시·관리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를 제공자에 대한 상대방 본인인증 의무 강 화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 소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 평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상담·치료 지원 강화
	정서적·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재 활 서비스 지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및 전국 확 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진단 및 대책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 관 연계·지원 및 홍보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이동안전 콘텐츠 개발 및 이동안전사 이버교육센터 구축 아동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종사자, 교사 교육 및 홍보 등 전개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 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하여 치료 및 재활 관련 관리 시행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사업 확대 시행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교 육 및 미디어교육 강화	스마트폰 등 인터넷 관련 중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프로그 램 개발, 홍보
교육부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 상담 활성화	또래상담 운영학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계획수립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추진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학교주변에 유해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학교 내 설치된 CCTV 성능 개선 및 설치 확충 초등학교 내 설치된 CCTV의 자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주관부처	주요 사업	사업 내용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및 점검, 전수 조사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교통안전 예방 활동 강화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교외 전문 인력과 연계 활동 강화 초등학교 중심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및 관리 철저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지원 및 선도보호 강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유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교육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경찰 합동으로 취약지역 점검 강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시범 운영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확대 각종 캠페인 실시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미디어 교육전문가 풀 구축 활용
법무부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 확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청소년 성문화교육 및 성보호 관련 홍보 강화	소년보호기관 성교육 담당자 전문교육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신도시 개발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시범도입
	성범죄자 공동주택 취업제한 강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점검 및 공개
안전행정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3대 안전관리의무 이행 추진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완료로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 실시 초등학교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미래창조과학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생애주기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실시 지역별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설치·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청소년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및 등급분류 정보 제공 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폭력성, 선정성, 언어의 부적절성 등) 자율등급분류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게임이용 단계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게임중독 예방조치 운영 청소년 게임과몰입 상담지원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등에 미디어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미디어교육 지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경찰청	아동·청소년 등하교길 안전 강화	아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아동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아동 등 실종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문·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 관리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대상 기초 DB 확보

주관부처	주요 사업	사업 내용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학교폭력 등 신고 접수·상담·수사·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 제공 117 센터에 대한 수요자 중심 시스템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로 학생들이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 청소년 활동 주기에 맞춰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활동 지속 전개
소방방재청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안전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서비스 운영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 운영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강화 모니터링 강화와 심의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청소년 출연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방송 제작 환경을 조성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이통사에게 청소년 스마트폰 계약시 음란물 차단 SW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 PC 및 스마트폰용 필터링 프로그램 보급 지속 확대

※ 여성가족부(2014), 보건복지부(2014), 교육부(2014), 법무부(2014), 국토교통부(2014), 안전행정부(2014), 미래창조과학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경찰청(2014), 소방방재청(2014), 방송통신위원회(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안전·보호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2) 비행범죄정책

위기 청소년의 증가와 더불어 청소년 비행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위험요소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에 예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2014년 부처별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범죄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개입정책의 확대이다.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리 예상되는 위기도 있지만 예상할 수 없는 위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위기 청소년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비행과 범죄로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2014년의 중앙부처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을 보면 예방적 개입 관련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위기 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청소년 실시간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비행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일탈 위기 청소년 대상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비행청소년 대상 문화예술·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2014)는 가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위기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고, 법무부(2014)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강화를 위해 성비행예방 전문지도자 양성과정(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경찰청(2014)에서도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법무부, 2014; 경찰청, 2014).

이와 같이 위기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기상황의 비행·범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다. 특정한 대상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시행 중이다. 청소년 연예인의 증가에 따른 성폭력이나 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강화를 위해 성인식 개선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폭력 예방자료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1:1 심층상담 및 맞춤형 사례지원을 하여 확실적인 대처를 지양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도 운영지원 중이다(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2014)에서는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치료 및 재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성폭력 가해 남자 소년원생 대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피해 여자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교육부, 2014).

법무부(2014)에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범죄성향 개선, 교화 사업을 추진하고 소외계층 지원 활동 및 피해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청(2014)은 가출청소년 조기 가정복귀를 위해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도서지역, 보호시설 등 일제 수색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법무부, 2014; 경찰청, 2014).

이러한 정책들을 과거의 같이 획일화된 기준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대상의 특수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부모 및 전문가 집단의 정책 참여의 확대이다. 청소년 비행·범죄의 원인 중 가정의 문제나 사회적 환경에 의한 부분은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비행·범죄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해체나 무관심 등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보호체계가 부족하여 비행이나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에 있어서 부모 및 전문가 집단의 양성,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4)는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구축·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2014)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있으며, 법무부(2014)는 부모와 연계한 보호관찰대상자의 효율적 지도 감독을 하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적극적 부모역할, 청소년의 비행과 자녀교육과의 관계 등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법무부, 2014). 이와 함께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과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2014)는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이와 더불어 경찰청(2014)의 명예경찰소년단과 같이 청소년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등 범죄로부터 보호 능력 배양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경찰청, 2014).

이와 같이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은 위기상황에 집중하면서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IV-4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비행범죄정책

주관부처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강화	성인식 개선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폭력 예방 자료 보급
	위기 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1:1 심층상담 및 맞춤형 사례지원 24시간 365일 청소년 실시간 상담체계 운영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청소년쉼터의 운영 지원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축·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지정·운영 117 상담신고센터 지원
	비행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일탈 위기 청소년 대상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비행청소년 대상 문화예술·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가출 예방교육을 실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위기상담

주관부처	주요 사업	주요 내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배치 사안처리점검단 운영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 지원
법무부	부모교육 확대	부모와 연계한 보호관찰대상자의 효율적 지도감독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적극적 부모역할, 청소년의 비행과 자녀교육과의 관계 등 교육 실시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실효성 있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실행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의 과도한 성적충동·환상, 과잉성행동 등의 문제를 감소시켜 재범억제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마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성비행예방 전문지도자 양성과정(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개설 소년원생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교육 등을 실시
	성범죄 피해·청소년 치료 및 재활교육 강화	치료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왜곡된 성 의식 개선 기관별 소집단 장기 프로그램 운영 보호관찰 개시교육 시 성폭력 예방 교육 필수 실시 성폭력 피해 남자 소년원생 대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진행 성폭력 피해 여자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 진행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위기·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지역사회 일반청소년 등에 대한 법교육 및 심리상담 지역사회 위기·일반청소년 보호자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
	비행 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범죄 성향 개선, 교화 소외계층 지원 활동 및 피해회복 프로그램 실시
안전행정부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경찰청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도서지역, 보호시설 등 일제 수색 가출청소년 발견 시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인계 불가·곤란할 경우 관련시설 등 입소 조치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명예경찰소년단으로 선발(초등 4-6, 중등 1-2) 학생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등 범죄로부터 보호 능력 배양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부모·교사 대상 학교폭력 예방설명회 실시

※ 여성가족부(2014), 교육부(2014), 법무부(2014), 안전행정부(2014), 경찰청(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비행·범죄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3. 교육·진로직업

1) 교육정책

청소년 교육의 문제는 주관부처인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 또는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에서도 교육에 관한 정책은 학교 밖 교육의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학교 밖 교육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부처별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교육부(2014)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및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를 신·증설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불평등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대학의 분담구조하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교육부, 2014).

농림축산식품부(2014)는 교육부와 함께 농어촌인성학교를 공동지정하여 농어촌 체험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매뉴얼을 공동개발하고, 시설물 지원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중앙부처간의 협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2014)에서는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021억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출신 대학생 4만명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여성가족부(2014)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2주간의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안학교와 검정고시 등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둘째, 학부모에 대한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정책이다.

교육부(2014)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교육정보 제공으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일과 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및 학부모강사 전문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전용 온라인 교육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참여가 부족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가정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교육부, 2014). 결국 교육의 주체로서 가정이나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표 IV-5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교육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농산어촌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화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도농·국제 청소년간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주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 향상
교육부	가족상담 및 가족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학교에서의 청소년기 자녀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일과 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학부모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및 학부모강사 전문연수 강화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및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기초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대상자,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 지원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 하에 국가장학금 지원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일과 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자료 실천적 활용 및 개발 범국민적인 캠페인 공감대 형성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사례 공모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관련 교사용 지도서 개발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운영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농어촌인성학교 공동 지정 농어촌 체험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공동 개발하고, 시설물 지원 및 운영시스템 구축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여성가족부(2014), 교육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농림축산식품부(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2) 진로직업정책

청소년 진로와 직업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장으로의 진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게는 힘겨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나 자유학기제 등의 진로관련 교육정책 역시 청소년기의 진로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부처별로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다양한 진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4년 부처별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의 강화이다. 청소년기의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제와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부(2014)에서는 중·고교 단계 각 1회 이상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진로체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진로체험 정보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등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4).

여성가족부(2014)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직업체험장(communitiy workplace)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법무부(2014)에서도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를 위해 소년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과 연계

한 현장훈련 등 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2014)는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를 위해 청년장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잡월드를 통한 직업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와 체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법무부, 2014; 고용노동부, 2014).

중소기업청(2014)에서도 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교 교과과정 개발·운영 및 특성화고 학생 Career 관리,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청소년 비즈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진대회 등의 교내체험활동과 창업캠프, 페스티벌 등의 대외행사를 지원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4).

둘째, 청소년에서 청년세대까지로의 자립지원 정책 및 사업의 확대이다. 진로·직업의 문제는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의 의미는 청년기의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또는 자기진로의 성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을 넘어 실제적인 취업이 가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2014)는 청소년의 직장체험을 위해 민간기업, 공공·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지원관(169명) 채용을 지원하고, 46개 대학에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4).

교육부(2014)는 취업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2014)는 위기·취약 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취업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4; 법무부, 2014).

여성가족부(2014)는 여성 청년의 취업을 위해 여대생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2014)는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고 사회진출시 일정기간 주거·취업·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보건복지부, 2014).

자립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청소년진로·직업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 진로환경에 대한 감독·지원의 강화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청소년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전한 근로여선 조성을 위해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나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는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 연예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교육부(2014)는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과정에서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국토해양부(2014)에서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 신축시 지원하고, 다수 대학의 학생에게 입주혜택이 부여되는 연합기숙사 건설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교육부, 2014; 국토교통부, 2014).

넷째, 성인 자원의 청소년 진로·직업 개발 참여이다. 청소년 진로·직업 개발을 위해서는 성인 자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진로교육에서의 멘토링이나 취업준비과정에서의 인턴 제공 등은 청소년 스스로 경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2014)는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 우호기업 위촉을 통한 청소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고용노동부(2014)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임금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 저명인사가 멘토가 되고 청년을 멘티로 선발하는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학청년고용센터와 민간 직업안정기관에 컨설팅트를 배치하는 청년취업 진로 지원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4).

이와 같이 청소년세대의 진로과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성인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6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진로직업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점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 및 정보제공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community workplace) 추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에서 지역내 기업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주관부처	주요사업	주요내용
		직업체험 기회 제공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여대생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유형의 차별화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으로 특화된 청소년수련시설 신규 건립 추진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 지원 취약 위기 청소년 중 사회진출 필요 청소년 대상 프 로그램 제공
	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서비스 지원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 워크 구축	청소년 우호기업 위촉을 통한 청소년에 양질의 일 자리 제공 민간 기관 MOU 체결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회진출 시 일정기간 주거·취업·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자립생활 정착 지원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 워크 구축 (휴먼네트워크)	멘토-멘티 연계 및 멘토링 교육·연구사업
교육부	진로직업체험 활성화	중·고교 단계 각 1회 이상 진로직업체험 운영 진로체험 지원 인프라 구축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학교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커리어넷을 통한 종합적인 진로정보서비스 확대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검사 및 상담 서비스 확대)	중등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 실시 교원의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역량 제고
	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	취업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예산 지원 학교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처 발굴 및 알선, 추수지도
	청소년 주거지원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기숙사 지원 대학내 기숙사 신·증·개축 사업 지원
법무부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강화	소년원 출원생 취업 및 자립지원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운영 1:1 멘토링 시스템 구축 무의탁 출원생 지원을 위한 전국 8개 자립생활관 운영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참여, 취업과정 지속 운영 장학금 지급 등 경제적 자립 지원

주관부처	주요사업	주요내용
		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지원 장학금 지원 및 경제구호 각 시·도 교육청, 학교와 연계한 복학주선 고입·대입 검정고시 지원으로 학력취득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연계 통근취업, 현장훈련 등 직업체험 실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근로이익을 고취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 전개
국토교통부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주택 지원
	청소년(청년)주거 지원	자체 부지 활용하여 기숙사 신축시 국민주택기금(총사업비 53%수준) 지원 다수 대학의 학생에게 입주혜택이 부여되는 연합기숙사를 건설 지원
고용노동부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 알바신고센터, 앱, 신고 대표전화 등을 통해 신고체계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내일배움카드제 운영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직장체험장 추진	민간기업, 공공·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 지원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체험(3개월 이내) 지방강소기업 등 탐방 기회(1~2일)를 제공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 지원	취업지원관(169명) 채용을 지원하고, 46개 대학에 청년고용센터를 설치 권역별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취업성공자에 대해선 별도의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한 임금 지원
	한국잡월드를 통한 직업체험 강화	직업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사회 저명인사가 멘토가 되고 청년을 멘티로 선발하여 멘토링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법정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중장기 대책 수립·추진

주관부처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
중소기업청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 지원	특성화 교과과정 개발·운영, 교육기자재 구입비, 특성화 전담교원 연수비 등 지원 특성화고 학생 Career관리,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이론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교내체험활동(경진대회, 비즈마켓, 창업골든벨), 대외행사(창업캠프, 페스티벌) 외부 전문가 특강

※ 여성가족부(2014), 보건복지부(2014), 교육부(2014), 법무부(2014), 국토교통부(2014), 고용노동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중소기업청(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4. 활동·권리참여

1) 활동정책

청소년 활동정책은 1990년대 이후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 역할이나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타 영역에서 체험활동정책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청소년활동정책의 주류가 변화되어 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정석,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정책에서 핵심적인 영역임에는 분명하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활동관련 인프라 확대, 다양한 지역연계 사업,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개 중앙부처에서 운영되고 있을 만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부처별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확대이다. 청소년 활동정책의 가장 큰 흐름은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활동의 영역과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학교가 지역의 다양한 자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은 6개 부처(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 2014; 해양수산부, 2014; 산업통상자원부, 2014; 환경부, 2014; 외교부, 2014)와 4개 청(문화재청, 2014; 농촌진흥청, 2014; 특허청, 2014; 산림청, 2014)에서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나 내용이 다양하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일반적인 학교연계 형태의 체험활동으로 학교를 벗어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이고, 이외에는 부처별 특정 사업 영역(문화체험, 발명 등)을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학교 이외의 지역자원을 활용·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정책과 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활동의 도구화이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는데 청소년활동을 활용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법무부(0214)에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주관으로 부모-자녀 관계 촉진을 위한 합숙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법무부, 2014), 미래창조과학부(2014)는 건강한 정부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누리 지킴이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2014)의 소외계층 대상의 청소년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국가보훈처(2014)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캠프와 체험활동 등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행동을 개선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가보훈처, 2014) 청소년정책과 사업에서 청소년활동을 도구화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대 및 관리 시스템 강화이다.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용공간, 지도 인력 등과 같은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활동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청소년활동종합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등과 같은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확산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청소년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양성 및 관리도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2014)에서도 창의적체험활동지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4).

특허청(2014)에서도 발명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발명영재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발명·특허 교육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특허청, 2014).

표 IV-7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활동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역량별 지표 개발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 국가 청소년역량지수(Youth Competencies Index)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대	군역(지역)별로 특성화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추진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 청소년센터(가칭)로 개편하고 종합기능 강화 및 설치확대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역량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및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의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특화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조정 추진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보수교육 지원 및 포상 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수련시설 배치기준 강화 및 국비지원 확대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 개선 추진
	청소년상담사 전문연수, 보수교육 지원 등	청소년상담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인증 추진을 통한 운영 단체의 전문성 확보와 일선 학교와의 연계 추진 청소년단체 지도자 전문성 확보,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청소년활동종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활동 개별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한 개의 아이디로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이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추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 마련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 운영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성화 추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및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의 청소년 참여 확산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운영토록 지원 확대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이주배경청소년 및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캠프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저개발 국가 청소년들을 위한 개발협력(ODA) 확대
교육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창의체험자원지도 구축운영 창의체험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사춘기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과정의 합숙 캠프 운영으로 부모-자녀 관계 촉진
미래창조과학부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전국 초중고교 아름누리지킴이 동아리 지원 교육, 홍보 및 체험활동 전개로 학교 내 건강한 정보문화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소외계층 대상 사업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문화예술동아리 및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사업
	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체험형 국악공연 및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제공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전통 공연 프로그램 제공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청소년 대상 왕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과 박물관·궁궐 등 현장을 연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왕실문화 특화 주말·방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생생한 자연유산 체험기회 제공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안전행정부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 나눔포털 운영 시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 파악, 활동실적 증빙·제출 등 청소년들을 위한 편의 제공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월례휴가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도농교류협력사업	청소년 농어촌 체험 사업
해양수산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사-어촌교류촉진
산업통상자원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청소년 산업기술 체험 프로그램 임베디드SW경진대회 (주니어 분야)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 교육용 로봇 시범사업 지원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개최
환경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 및 청소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친환경체험 기회 제공
외교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외교사료관 프로그램 운영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 사업	한·미/중/일 청소년 교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대학생을 위한 외교부 워크숍 주요 국제문제 특강 학교 방문 강연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국제협력특강 지원 강사양성교육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적격강사 선발 코이카 통합공모전 수상자 대상 해외무상협력사업 현장 견학 실시 지구촌체험관 운영
통일부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 이해증진	남북 청소년교류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남북 청소년교류 기반 조성 추진 단계별 청소년교류 추진
국가보훈처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실천 역량 강화	나라사랑 연수교육 청소년 보훈캠프 독립군 체험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봉사 프로그램(앞섬이) 운영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및 창의체험 학교 지정·운영	방문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 문화유산교육(이론, 현장답사) 실시 문화유산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청소년 대상 문화재 보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인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운영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및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궁궐 및 궁궐 문화유산의 전반적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충사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유산과 연관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습·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해양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
농촌진흥청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4-H회원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특허청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발명영재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발명·특허 교육 확산 우수 발명인재 발굴을 위한 발명·창의력 대회 운영 발명교육센터 운영
산림청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초·중) 대학생 대상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족부(2014), 교육부(2014), 법무부(2014), 미래창조과학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안전행정부(2014), 농림축산식품부(2014), 해양수산부(2014), 산업통상자원부(2014), 환경부(2014), 외교부(2014), 통일부(2014), 국가보훈처(2014), 문화재청(2014), 농촌진흥청(2014), 특허청(2014), 산림청(2014), 국민권익위원회(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활동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2) 권리참여정책

청소년 권리·참여정책은 최근에 가장 확대된 정책 영역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권리교육과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청소년 참여기구가 활성화 되었고,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권리와 참여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부처별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의 확대 및 실제적 참여권한 강화이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정책의 참여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청소년사업의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청소년특별회의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국가·자치단체·청소년시설의 정책 형성·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보건복지부(2014)도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부(2014)도 학생들이 정책에 대한 대안 등 의견을 자율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참여기구를 내실화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교육부, 2014).

또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청소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청소년관련 정책과 사업에 청소년들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 2014).

특히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실제적 정책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 매체 중심의 권리·참여교육의 확대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통한 사회 참여가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매체 중심의 권리·참여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일반청소년 대상 트위터, SNS, 스마트폰 활용 등을 통한 정책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디어컨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미래창조과학부(2014)에서는 사이버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체험·사례 중심의 공연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2014)에서도 교육기반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례를 개발하고 인터넷중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바른 인터넷 생활지도 이해를 위한 교육사업도 전개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교육부, 2014).

인터넷 사용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미디어 기기 활용 능력이 성인보다 뛰어난 청소년세대에게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조남익, 2012).

셋째, 성인대상 청소년 권리·참여이해 교육 및 사업의 확대이다.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청소년 스스로 주장하고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에 관련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청소년 권리·참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2014)는 초·중·고 교원 대상 양성평등 교수 능력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미디어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와 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권리, 정보윤리, 리더십 등의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교육부, 2014; 미래창조과학부, 2014).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4; 보건복지부, 2014; 교육부, 2014), 방송통신위원회(2014)에서는 방송종사자에 대한 올바른 언어교육 및 방송언어 순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2014)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연수)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보호에도 노력하고 있고, 경찰청(2014)에서는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진술녹화실 외부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조사 참관 후 의견서를 수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2014)에서는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영상물 건전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4; 경찰청, 2014; 문화체육관광부, 2014).

표 IV-7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활동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고유번호
여성가족부	청소년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학교의 학생봉사활동 등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 제도 도입 추진 특화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개선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 체계 강화	초·중·고 교원 대상 양성평등 교수 능력 함양 교육 실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지표 개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민주시민역량을 준비하는 학습의 장 마련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 사이트 개발·운영 지원 일반청소년 대상 트위터, SNS, 스마트폰 활용 등을 통한 정책참여 통로 마련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 추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국가·자치단체·청소년시설의 정책 형성·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기구 운영

주관부처	주요사업	고유번호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 대상 권리교육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한 권리교재 활용 및 협약 이행 적극적 홍보 청소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협약 홍보 권리교육 협약 이행사항 모니터링 등 추진
	미디어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인터넷, 음반 등)에 대한 사업자 대상 컨설팅 및 청소년보호교육 실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매주 수요일 시행 중인 ‘가족사랑의 날’ 확산 캠페인 시행
보건복지부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청소년 대상 나눔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대한민국 아동총회 지역대회 및 본 대회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지역별 참여 아동 선정, 지역별 대회와 본 대회 개최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실태 점검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교육부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가족·사제동행 봉사활동 공모전 개최를 통한 활성화 및 우수사례 공유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모델 개발 보급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또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학생모니터단 활동지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과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 학생들이 정책에 대한 대안 등 의견을 자율적으로 개선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교육 및 지속적인 연수 실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교사 연수 자료 등으로 개발 및 연수 실시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실시 및 문화조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확대 시행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연수)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	교육기반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례 개발 및 교원 연수 실시 유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바른 인터넷 생활 지도 이해 제고

주관부처	주요사업	고유번호
미래창조과학부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	범국민 정보윤리교육 강화 정보화역기능대응 리더십 직무연수 운영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체험·사례 중심의 공연교육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청소년의 영상물 건전이용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 조성	체육지도자, 운동선수, 학보모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각종 (성)폭력 등에 대한 신고 접수사항에 상담
경찰청	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	아동·장애인 행동과 진술분석의 전문성 필요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진술녹화실 외부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조사 참관 후 의견서를 수사 자료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특집 프로그램 및 공익광고(자막) 방영 등 캠페인 추진 방송프로그램 사후심의 활동 강화 방송종사자에 대한 올바른 언어교육 및 방송언어 순화 활동 지원

※ 여성가족부(2014), 보건복지부(2014), 교육부(2014), 미래창조과학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경찰청(2014), 방송통신위원회(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권리·참여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제 V 장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

1. 유럽연합
2. 유럽평의회
3. 뉴질랜드
4. 일본

제 V 장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⁵⁾

1.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국가적 차원이 아닌 유럽 연합적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처한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첫째, 유럽 인구지형의 변화이다. 한국도 청소년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유럽도 고령화 사회와 청소년인구 감소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럽연합은 2050년이 되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19.4%에서 15.3%로 줄어들게 된다(European Commission, 2009:3). 청소년의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청소년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청소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청소년기에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이는 경제논리와도 관계가 있는데, 실업의 상태를 최소화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극대화하겠다는 청소년정책이기도 하지만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주는 유럽의 사회적 배경은 청소년기의 연장인데, 청소년기의 연장은 경제적 침체와 실업율의 증가 때문이다(Titley, 2008). 그 결과 청소년은 어느 시대보다도 정규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며(의무교육과정 이후에 선택하게 되는 고등교육학교나 대학교), 혹은 직업기술훈련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은 전통적인 유럽의 문화의 틀을 바꾸기도 하여 20세 이후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도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Titley, 2008).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에의 시도가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은 리스본조약

5) 이 장은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을 통해 유럽통합을 경제통합에서 정치, 사회통합으로까지 도모하고 있는데 이때 청소년이 유럽의 사회통합을 견인할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4). 유럽연합은 기존의 Youth in Action으로 불리던 청소년교류프로그램을 2014년부터는 ‘Erasmus +’라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여 유럽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유럽 각지를 오고가며 유럽을 이해하고 유럽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4). 이러한 통합에의 움직임이 유럽연합차원의 청소년정책 수립과 실시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은 유럽 내 증가하는 교류의 증가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확대에 의한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의 증가이다. 유럽 내 교류의 증가와 유럽연합의 팽창으로 유럽연합은 점점 회원국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국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럽의 통합이 주는 다양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유럽의 경제·정치적 통합은 유럽 내 교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었고, 그 결과 타국으로의 이주와 장기간 거주에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다양한 교류와 이주는 서로 다른 경제수준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Titley, 2008). 이러한 사회·문화·경제적 차이로 인해 청소년사이에도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심화될수록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요원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계화와 교류의 증가로 타문화권에 장기거주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언어에 대한 장벽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취약계층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2). 경제적 위기와 타문화에 속할 수 없는 사회적 배제는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기능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배제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게 되며 사회통합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청소년정책이 추후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점이 청소년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미래가 청소년에 달려있다고 천명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9:2). 리스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청소년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에서 의미하는 청소년이란 13세에서 30세가 주로 해당이 되며 유럽연합 회원국내 모든 청소년이 유럽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실현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European Commission, 2009:3).

유럽연합이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2001년에는 White Paper의 발표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세 가지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9:3). (1) 4대 우선 정책(참여, 정보, 자원봉사, 청소년이해)과 일반적인 청소년정책 목적, 회원국 보고서, 청소년과의 대화(structured dialogue) 등에서 Open Method of Coordination(이하, OMC; 공개조정방법)등을 통한 청소년의 적극적 시민성 함양을 우선 정책으로 함(European Commission, 2009). (2) 리스본 조약으로 체결된 유럽청소년협정(European Youth Pact: 3대 우선정책: 고용, 사회적 포섭, 교육, 훈련, 일과 개인적 삶의 조화)의 실행을 위하여 사회적·직업적 통합을 청소년정책에 포함하고 유럽위원회의 ‘청소년의 교육, 고용,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증진’을 계승함(European Commission, 2009). (3) 청소년정책을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배치(특히, 반차별 정책과 보건정책에서)(European Commission, 2009).

이상에서 제시된 세 가지 정책 원칙은 2008년부터 제시된 새로운 청소년정책에서도 여전히 주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적용될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럽의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9). 유럽의회 주관의 대규모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실효성, 효과성, 평등성, 적절성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때, 모든 회원국 청소년의 의견이 골고루 제시되어야 하고, 각국의 상황과 배경을 고려한 청소년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스스로 제시하는 청소년에 대한 비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는데 이 내용이 미래 청소년정책에 담겨 있다. 즉 이 미래전략의 제목의 부제가 ‘Investing and Empowerment’인데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09). 즉 유럽연합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비전은 투자와 임파워먼트이다. 첫 번째 비전인 청소년에 대한 투자(Investing)는 청소년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청소년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두 번째 비전, 청소년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유럽을 재건할 수 있고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정책에 이러한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유럽연합은 위에서 제시한 비전의 달성을 위해 세 가지 우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고, 이 세 가지 아젠다에는 하위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European Commission, 2009).

표 V-1 단기 정책아젠다와 하위 정책영역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1.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	교육
	고용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2. 청소년의 참여 확대	보건과 스포츠
	참여
3. 사회와 청소년간의 상호 연대 강화	사회적 포섭
	자원봉사
	청소년과 세계

※ European Commission(2009). An EU Strategy for Youth-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정리함.

위의 표에서 제시한 하위정책과제의 2018년까지의 달성목표를 하위정책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

유럽에 거주하는 20~24세의 청소년 및 청년은 거의 80% 이상이 중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지만, 1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평가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문해력에 있어 평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6만여 명의 학생들은 여전히 중등학교 졸업장 없이 중등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European Commission, 2009). 이러한 학력수준의 저하는 공교육의 강화와 교육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의미하므로 유럽연합은 미래비전의 달성을 위한 첫 번째 하위 정책으로 교육을 지정한 것이다. 미래 교육정책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5).

표 V-2-1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교육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정책목표
1.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	① 교육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공교육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도모, 공교육과 청소년지도의 통합 초기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형식교육기회 개발 유럽연합 전체에서 활용가능한 기술과 관련한 자격증제도 도입 교수자와 정책입안자의 협력 증진 공교육과 학교밖 교육에서의 성 고정관념 약화 청소년 상담지원 강화와 상담기회 확대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제도내에서 참여활성화를 위한 구조 마련

※ European Commission(2009:5).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제시함.

청소년기의 확대는 청소년의 실업율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유럽의 경기침체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별다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청소년은 낮은 수준의 단순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미래사회에 유망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European Commission, 2009:6).

표 V-2-2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고용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정책목표
1.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	② 고용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안전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유럽 내 어느 곳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유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시장의 필요를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함 청소년 고용율 향상에 대한 국가적 지원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정책목표
		다양한 국가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의 고용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고용정책 수립시 고용자와 청소년정책 입안자의 협력 촉진 유럽사회재정(European Social Fund)이 청소년의 고용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배정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 평가와 구조적 평가방법 개발 진로상담과 진로지도 강화 유럽연합 내 노동 교류를 위한 장벽 제거 인턴십 강화 아동보육지원으로 젊은 부부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조화 도모

※ European Commission(2009:6).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 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제시함.

과학기술의 발달은 학습과 참여에 있어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보급으로 청소년은 창의성과 혁신에 있어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달성 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European Commission, 2009:7).

표 V-2-3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정책목표
1.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	③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모든 청소년의 재능개발, 창의성 증진, 기업가정신 함양, 문화감수성 개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과 초기 사업자본 지원 청소년이 관심있는 예술, 과학 등의 재능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개발 창의성교육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있어 청소년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강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각종 창의적인 도구와 프로그램에의 접근성 확대

※ European Commission(2009:7).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 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제시함.

2) 청소년의 참여 확대

유럽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신체활동의 부족, 약물남용 등이 그 이유이며, 유럽 청소년 보고서(EU, Youth Report)에 따르면 건강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관계가 있으며, 건강하지 않은 청소년일수록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밝힌바 있다(EU, 2012). 유럽연합 보건전략(2008-2013)은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우선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청소년 미래비전 역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중요한 미래사회의 과제로 보고 있다. 또 건강한 청소년이 많아질 때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증대될 것이라는 관점은 향후 한국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관점이다. 목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European Commission, 2009:7-8).

표 V-2-4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보건과 스포츠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정책목표
2. 청소년의 참여 확대	④ 보건과 스포츠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증진. 청소년지도사, 스포츠전문가, 학교간의 협력증대로 청소년의 신체활동 강화와 체육교육 강화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문제의 예방 청소년의 웰빙과 건강증진을 위해 유럽연합의 체육활동 가이드라인(EU Physical Activity Guidelines⁶⁾)의 준수와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강화 청소년지도사의 스포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지역수준에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건강정보와 프로그램 지원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의 토래 건강 교육 진흥

※ European Commission(2009:7-8).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제시함.

한국보다는 청소년의 참여가 활발하지만 유럽연합 역시 점점 청소년의 정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참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청소년이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공동체 의식의 함양, 공동의 번영과 민주주의에

6) European Commission(2008). Support of Health-Enhancing Physical Activity. European Commission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이들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는 유럽연합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초석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보다 평균 2세 이상 선거연령이 높고, 청소년의 참여가 적극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럽연합과 큰 차이가 있으며, 향후 미래전략을 수립할 때, 청소년참여가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전술한 것처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이 사회참여에도 더 적극적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 참여를 위한 유럽연합의 하위정책 목표는 아래와 같다(European Commission, 2009:8).

표 V-2-5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참여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정책목표
2. 청소년의 참여 확대	⑤ 참여	청소년단체와 시설활동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함.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함. 청소년참여와 관련한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 지역, 국가, 유럽연합 수준의 청소년시설과 단체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참여 확대 e-민주주의의 확대와 청소년주도의 청소년단체 확산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 국가, 유럽연합 수준의 다양한 토론의 장에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

※ European Commission(2009:8).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제시함.

3) 사회와 청소년간의 상호 연대 강화

2006년 기준으로 유럽 청소년(16세~25세)의 5분의 1가량이 위험한 수준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이유로는 실업, 장애, 차별, 심리적·정서적 문제, 중독, 학대, 가정 폭력, 범죄 연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도 소중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장기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을 경우 또 다른 폭력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섭의 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회적 배제의

여러 원인 중, 빈곤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빈곤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긴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섭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ropean Commission, 2009:9).

표 V-2-6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사회적 포섭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정책목표
3. 사회와 청소년간의 사회적 연대 강화	⑥ 사회적 포섭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처한 청소년들의 문제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여러 전문가와의 지원 체계 구축(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건강전문가, 경찰, 고용주 등)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 중, 여러 이유로, 다양한 기회가 박탈당한 청소년과 그들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청소년의 사회 안으로의 통합을 위한 유럽 펀드의 사용과 시범 사업개발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지도(활동)의 역할에 사회적 공감 형성 모든 청소년의 간문화 감수성과 다양한 능력 개발 청소년의 정책결정에의 참여 활성화와 청소년 역량 개발 사회통합 정책에 청소년의 참여와 관계자 간의 상호 협력 위기청소년이 문제를 해결한 경우에 포상하고 지원, 사례구축 청소년의 주거, 재정적 문제, 노숙청소년의 문제 등을 이슈화 교통, 보건, 사회복지, 온라인에서의 포섭의 질 향상 20대 초반의 젊은 부부와 자녀에 대한 지원

※ European Commission(2009:8).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제시함.

자원봉사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체험하고 자개개발과 기동성, 경쟁, 사회통합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청소년들이 자국을 넘어 유럽 전역,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이러한 자원봉사의 기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토양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자 했다. 자원봉사의 기원이 유럽인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개발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과는 다소 다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전략에 포함된 자원봉사의 목표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European Commission, 2009:10).

표 V-2-7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자원봉사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정책목표
3. 사회와 청소년간의 사회적 연대 강화	⑦ 자원 봉사	자원봉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원봉사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며, 보다 다양한 종류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 세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소개 및 학교 밖 교육과 비형식 교육(청소년활동)의 중요성 강조 Europass 와 Youthpass⁷⁾ 실효성 강화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의 중요성 인식 자원봉사활동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자의 권리 보호, 유럽자원봉사의 해(European Year of Volunteering 2011)의 운영에 청소년단체와 협력 국경을 초월한 자원봉사활동에의 접근 가능성 강화 자원봉사를 통해 세대 간 유대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European Commission(2009:10).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제시함.

유럽과 한국의 청소년은 급속한 지구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유럽 청소년들의 경우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와 경제침체, 환경파괴 등의 기존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청소년들이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지구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 즉 환경과 인권, 차별 등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넘어 다른 세상과도 교류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야말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주요 역량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European Commission, 2009:11).

표 V-2-8 단기 정책아젠다에 따른 하위 정책영역의 목표 : 청소년과 세계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정책목표
3. 사회와 청소년간의 사회적 연대 강화	⑧ 청소년과 세계	현존하는 청소년 네트워크와 대화의 광장(structured dialogu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국가, 세계적인 수준의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함

7)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 완수하게 되면 받게 되는 증명서로 유럽 전역에서 취업과 진학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증명서의 일종이다(European Commission, 2009:10).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정책목표
		재활용, 에너지 절약, 하이브리드 차량 등의 생산과 소비 등의 환경보호 운동에 청소년 참여 독려 유럽 외 전 세계에서 청소년의 기업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장려 유럽 외 지역에서의 청소년활동과의 교류 및 개발 강화 전 세계 청소년의 기본권 수호와 개발문제에 대한 이해 촉진

※ European Commission(2009:11).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제시함.

한편 청소년지도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에서 전문가인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을 위한 활동이다. 리스본조약에 따른 법률 용어는 사회교육강사(socioeducational instructors)이지만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청소년지도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유럽연합은 학교가 더 이상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하에 청소년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같이 담당해야 한다고 믿는다(European Commission, 2009:11). 즉 어떤 영역, 예를 들어 실업, 학업중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화된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성인으로의 전환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청소년활동은 학교 외 활동으로 선택적 활동이자, 별로 필요 없는 활동이라는 인식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물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청소년활동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유럽연합은 미래전략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의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11).

또한 미래비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에서 청소년정책이 다양한 정책, 즉, 아동과 가족, 교육, 성평등, 고용, 주택과 보건 정책 등과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이에 각 회원국은 국가적 수준에서 다양한 정책들과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정책이 어떻게 일관성있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보고서 제출을 통해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화의 광장(structured dialogues⁸⁾)을 운영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12). 이 프로그램은 미래 전략의 실행정도를 모니터하고 국가별로 유럽연합이 제시한 미래전략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는 각종 청소년시설과 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며, 청소년정책 입안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정책을 매년 평가한다(European Commission, 2009:12). 이러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평가는 청소년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본 지침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고, 정책의 입안 시에 평가계획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책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유럽평의회

2008년 우크라이나에서 개최된 유럽평의회의 미래청소년정책 Agenda 2020은 유럽평의회의 약 40년간의 청소년정책의 집대성이자, 미래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미래 청소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 가지 기본이념을 청소년정책에 부여함으로써 향후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기본지침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기본이념이자 철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Titley, 2008:4). 첫째, 인권과 민주주의. 둘째, 다원화 사회에서 함께 살기.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포섭(사회적 배제 예방)(Titley, 2008:4).

Agenda 2020은 2005년 유럽평의회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상회담과 선언문의 주요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유럽평의회의 미래와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랜 고심 끝에 제시된 미래 청소년정책이다. Agenda 2020의 미래 청소년정책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다(Titley, 2008:7-15).

8)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청소년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청소년장관이사회는 2005년 유럽위원회와 각국의 청소년, 청소년연구자, 청소년지도자를 초대하여 구조화된 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이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에는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유럽연합 산하 각종 기구들의 대표들도 참여하여 개별국가와 유럽연합 차원의 청소년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 정책 수립 시기 등을 논의한다. 이때 청소년단체는 각 단체에 속한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유럽연합이 주최하는 Youth Forum과도 파트너십을 갖는다. Youth Forum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 위기청소년, 다양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의 차이로, 이러한 청소년들이 평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데서 비롯되었다(Denstad, F.Y.(2009). Youth Policy in Europe. In: F.Y. Denstad, Youth Policy Manual: How to develop a national youth strategy. 21-40.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표 V-3 AGENDA 2020 미래 청소년정책 개요

기본이념	세부정책 내용
1. 인권과 민주주의	청소년의 인권, 인간 존엄성 향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청소년의 참여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 안에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진흥 청소년의 동등한 참여 확대 성 고정관념에 의한 폭력 예방 및 청소년의 성 평등 확산 환경교육과 지속가능개발교육의 강화 및 필요성 인식 강조 유럽평의회 서비스와 정보 접근성 강화
2. 다원화 사회에서 함께 살기	문화다양성, 연대, 간문화적 의사소통의 촉진을 위한 청소년 임파워먼트 모든 형태의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증, 극단주의 척결과 예방 청소년이 갈등 예방과 화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유럽의 소외지역과 전 세계 청소년과의 협력강화 지구적 연대와 결속 강화
3. 청소년의 사회적 포섭 (사회적 배제 예방)	비형식교육(청소년활동)에의 참여확대를 통한 교육, 훈련, 고용에 관한 청소년의 접근성 촉진 청소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건강한 전환 지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통합 지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 보장과 청소년의 자치권 향상 예술, 문화, 스포츠 활동 참여에의 평등권 보장 세대 간 소통과 결속강화

※ Titley, G.(2008:7-15). The future of the Council of Europe youth policy: AGENDA 2020. 8th Council of Europe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 Background document. Council of Europe에서 전반적으로 소개된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제시함.

각 정책별 세부 내용과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Titley, 2008:7)

1) 인권과 민주주의

청소년의 인권 향상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유럽평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이념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많은 종류의 인권증진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유럽평의회의 입장이다(Titley, 2008:7).

인권의 한 영역인 사회권 역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권은 청소년의 의미있는 참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사회권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배제상태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사회 안으로 포섭하게 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미래정책은 유럽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인권과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 정책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Titley, 2008:8).

첫째, 청소년의 인권, 인간 존엄성 향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의 인권보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럽평의회의 인권정책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정책에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는 기관과 파트너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프로그램의 주요 전달자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비형식교육으로 대표되는 청소년지도와 청소년활동은 유럽연합보다 유럽평의회가 먼저 중요하게 인식한 바와 같이, 인권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보다는 형식적이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활동을 통한 인권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평의회는 또한 인권교육의 적절성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성이 인권교육 평가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미래정책은 유럽평의회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과 청소년프로그램과의 공유 및 연대를 통한 청소년인권 프로그램의 촉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Titley, 2008).

둘째,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 안에 청소년의 적극 참여 진흥. 청소년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사회의 다양한 제도 안에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럽평의회는 청소년의 인권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 결정과정 안에 청소년의 참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참여가 자국을 포함하여,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수준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미래 청소년정책의 핵심요소이다(Titley, 2008:8).

셋째, 청소년의 동등한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청소년에게 공평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며, 특별한 이유로 참여에서 소외될 확률이 높은 청소년들(장애, 다문화,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Titley, 2008:9). 특히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배제의 상태를 벗어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성 고정관념에 의한 폭력 예방 및 청소년의 성평등 확산. 성평등에 관한 이슈는 청소년활동

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유럽평의회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을 예방하고 청소년활동을 통해 성평등의 가치와 의미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미래정책에 담고 있다(Titley, 2008:9).

다섯째, 환경 교육과 지속가능개발교육의 강화 및 필요성 인식 강조. 유럽평의회는 지속가능개발교육이 인권교육으로 통합되어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을 미래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다(Titley, 2008:9).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미래를 생각하고 보전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도록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여섯째, 유럽평의회 서비스와 정보 접근성 강화. 회원국 내 모든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정보에서도 취약계층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에 유럽평의회는 청소년들이 교육과 훈련, 고용에 관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들 또한 청소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Titley, 2008:9). 또 미래 청소년정책에 의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관련한 시설과 프로그램도 개발될 것으로 보여, 유럽평의회 회원국 내 청소년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다원화 사회에서 함께 살기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회원국보다 더 많은 4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내 교류의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데 특히 종교, 문화, 언어, 성, 신체적 능력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로 인해 각국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다양성으로 인한 여러 갈등도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유럽평의회는 다원주의 사회가 주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서로 공존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Titley, 2008:10). 2006년에서 2007년에는 ‘All different-All equal’ 이라는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평등하다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Titley, 2008:10). 학교교육보다 훨씬 자유로운 형태인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 다원화사회의 장점을 누리고 서로 화합하여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Titley, 2008:10).

첫째, 문화다양성, 연대, 간문화적 의사소통의 축진을 위한 청소년임파워먼트. 다양성이 주는 차별과 인종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이를 위한 청소년활동에의 참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diversity(다양성)’가 청소년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의 철학적 관점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다양성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게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Titley, 2008).

둘째, 모든 형태의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증, 극단주의 척결과 예방. 인종주의와 차별은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요소이며 전술한 ‘All different-All equal’ 캠페인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이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관용과 다름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교육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Titley, 2008:11). 유럽평의회 미래청소년정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차별과 극단주의적 생각을 갖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제안해오고 있다(Titley, 2008:11).

셋째, 청소년이 갈등예방과 화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며,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를 통해 청소년단체와 시설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미래 청소년정책에 포함하였다(Titley, 2008:12).

넷째, 유럽의 소외지역과 전 세계 청소년과의 협력 강화. 유럽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이 공평하게 유럽평의회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아시아와 미대륙의 청소년들과도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을 제안하였다(Titley, 2008:12). 이는 유럽이 전통적으로 청소년간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평의회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는데서 미래정책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

다섯째, 지구적 연대와 결속 강화. 다양성, 평등성, 그리고 인권에 관한 사안은 유럽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청소년 모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가치이다. 그리하여 유럽평의회는 이러한 가치를 청소년정책 안에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Titley, 2008:12).

3) 청소년의 사회적 포섭(사회적 배제 예방)

청소년의 사회적 포섭은 곧, 유럽의 사회적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은 다양한 문제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에 유럽평의회는 미래청소년정책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Titley, 2008:12).

첫째, 비형식(청소년활동)에의 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 훈련, 고용에 관한 청소년의 접근성 촉진. 청소년활동은 학업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청소년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는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청소년활동(지도)이 청소년의 교육과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Titley, 2008:13). 한국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점과 매우 대비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건강한 전환 지원.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청소년이 청소년시기에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준비하여 건전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제시하였다(Titley, 2008:14). 학교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필요한 직업역량을 개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인식하에 청소년지도(활동)를 통한 청소년의 직업역량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통합 지원. 이상에서 전술한 여러 정책에도 나타나듯이 유럽연합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다. 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청소년들이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Titley, 2008:14).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 보장과 청소년의 자치권 향상. 청소년이 자치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택, 보건, 교통,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미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Titley, 2008:14).

다섯째, 예술, 문화, 스포츠 활동 참여에의 평등권 보장. 모든 청소년은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활동 및 신체활동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유럽평의회는 이러한 기회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Titley, 2008:15).

여섯째, 세대 간 소통과 결속 강화. 유럽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세대 간 다양성과 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한다. 인구의 불균형과 급변하는 세계는 세대 간 갈등을 더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단체와 청소년 정책 입안자들은 세대 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청소년과 다른 기성세대간의 의사소통 및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래 청소년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Titley, 2008:15).

3. 뉴질랜드

지정학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진 뉴질랜드 역시 세계화와 새로운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발달이 사회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청소년개발이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뉴질랜드 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결하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개발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10). 청소년은 주로 12세에서 24세 미만을 의미하며, 이들이 변화하는 세계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청소년개발 정책은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뉴질랜드의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낮은 고용율, 중독, 원치않는 임신, 각종 범죄, 정신질환 등의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10).

뉴질랜드 청소년인구는 1996년 전체 인구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며, 향후 50년 이내에 1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유럽 출신이 아닌 비유럽, 즉 아시아권의 이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까닭에 아시아 배경의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10). 뉴질랜드 청소년은 성, 인종, 사회경제적 배경, 도시와 비도시간의 격차, 장애, 종교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의 다양성에 직면하고 있어 청소년시기의 긍정적인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10-11).

영연방 국가의 하나인 뉴질랜드는 영국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지만,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유성

과 이민자로 구성된 특별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뉴질랜드만이 갖는 독창적인 청소년정책을 보여 준다. 2002년에 발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이름은 ‘The Youth Development Strategy Aotearoa(청소년개발 전략)’로 이미 과거에 수립된 정책이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청소년정책으로서 본 해외사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미래 청소년정책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미래 청소년정책은 12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청소년으로 살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비전으로 채택하였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7).

이 정책의 6 가지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7-8). (1) 청소년개발은 거시적인 관점(Big Picture)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2) 청소년개발은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3) 청소년개발은 지속적인 강점 중심(strengths-based)의 접근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4) 청소년개발은 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5)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이 완전히 참여할 때 시작될 수 있다. (6) 청소년개발을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7-8).

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Affairs)는 특히 청소년개발 정책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8). 청소년개발은 청소년자신의 개발이기도 하지만 소속감과 정체성 함양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부가 제시하는 청소년개발정책의 목적은 첫째, 모든 청소년들이 중요한 사회적 환경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정책이 긍정적인 청소년정책과 연계될 수 있게 하며, 셋째,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한 개발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8). 이에 다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8). (1) 강점 중심(strength-based) 청소년 개발에의 지속성 보장, (2) 청소년전문가 양성, (3)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회 창출과 환경조성, (4) 청소년개발을 위한 연구 강화와 자료 축적(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 이상의 세부목표들을 축약하면 청소년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와 연결되어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소년이 가족과 지역사회, 학교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청소년개발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18).

청소년개발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 거시적 접근 방향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16-17).

첫째, 청소년개발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상황이나 전쟁, 가족 내 문제, 자연재해,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청소년의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뉴질랜드의 경제적 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1991년에 청소년기를 마치고 사회로 진입한 청소년 세대는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부정적인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청소년기를 보낸 청소년이 보다 바람직한 성인기를 보낼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청소년의 삶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청소년개발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16-17).

둘째, 청소년개발정책은 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청소년은 그 어느 국가의 청소년보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은 청소년의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개발정책을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청소년이 처한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이라도 주류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16-17).

셋째, 청소년개발정책은 뉴질랜드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와이탕이 조약은 1840년에 영국의 뉴질랜드 식민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체결된 조약으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전통과 관습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현재까지도 중요하게 지켜져 오고 있는데 특히 마오리 출신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전통과 관습 안에서 최대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개발정책의 지향점이다. 이는 이전의 정부들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마오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에 대해 무심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16-17).

넷째, 청소년개발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국제법의 준수와 인권수호의 정신을 계승함을 공표하고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 청소년개발정책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며, 차별금지, 청소년 중심의 정책 수립, 삶과 생존, 발달에 대한 권리 보장,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 존중 등을 세부 정책 내용 안에 포함하고 있다(Ministry of Youth Affairs, 2002:16-17).

4. 일본

일본의 국가청소년정책은 한국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비슷한 것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청소년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정책에서 의미하는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와 정서적 갈등을 거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성인의 삶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말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 지식 등을 함양해야 하는 아동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시기를 의미한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3).

일본 사회 역시, 앞서 살펴본 유럽의 국가들이나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저출산, 인구감소, 정보화 사회의 심화, 핵가족의 증가, 도농간의 격차 심화, 고용패턴의 다양화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3).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2003년 12월 처음으로 국가 청소년개발정책(National Youth Development Policy)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중장기 청소년 개발계획과 정책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평가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3).

정책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관련법과 정책들을 정비해오고 있다. 저출산 대책, 식생활교육 대책, 자살 예방 대책,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2008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대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3). 이외에도 아동 매춘과 음란물 제작 예방을 위한 법을 개정하거나, 아동보호법, 아동 복지법, 아동 학대 예방법, 청소년 환경 조성 법, 인터넷 안전법 등의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3). 이상의 정책과 법의 개정은 일본의 청소년들도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에 노출되어있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청소년개발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청소년개발정책의 세 가지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5).

첫째, 사회에서 청소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이해. 청소년은 일본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성인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청소년개발의 첫 번째 원리로 보았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5).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성인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과도 관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독립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발달 지원 제공.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고 보고, 청소년시기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청소년개발의 두 번째 원리로 채택하였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5). 청소년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이지만, 공동체의 번영과 존속의 입장에서 개인의 건강을 논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개인의 건강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연결된다고 보는 발상이야 말로 청소년개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5).

셋째, 개별 청소년의 필요에 맞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전체의 통합적 지원. 청소년들은 역량이나 잠재력 등에서 모두 다른 특징과 필요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개발은 이러한 각기 다른 청소년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그러므로 청소년개발정책을 통해 사회의 청소년개발에 대한 책임을 확인시키고 개별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체제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 주요 원리라고 할 수 있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5).

청소년개발정책에 해당되는 연령은 0세에서 30세에 해당하며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위한 핵심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5-6).

첫째, 건강한 성장의 기초 마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는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신뢰, 자아존중감과 자기 확신, 질서있는 생활스타일(규칙적인 취침, 기상, 식사) 등이 있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5-6). 이러한 삶의 기초를 통해 청소년은 기본적인 생활스타일을 익히고 신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풍부한 인류애를 함양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및 강점과 창의성 배양. 위에서 언급한 건강한 성장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개발정책은 두 번째 핵심 사안으로 청소년이 다른 사람과 다양하게 교류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과 삶에 대해 나누며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5-6). 두 번째 핵심 사안을 통하여 청소년개발정책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경험과 단체 활동에의 경험을 갖고, 세대간 교류와 국제교류를 통한 포용성을 습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모든 청소년들은 다양한 종류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면과제로 안고 있다. 이에 세 번째 핵심사안은 청소년들이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위기를 최소화하고자 고안되었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5-6).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제공하는 양방향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사회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집, 학교, 지역사회가 청소년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네 번째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2008:5-6).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제 VI 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제 VI 장 결론⁹⁾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진단 하에, 청소년을 둘러싼 향후 2040년까지의 중장기 미래사회 환경을 전망함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환경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3년~2014년까지의 2개년에 걸쳐, 1차년도인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의 트렌드를 전망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2차년도인 2014년에는 1차년도 연구를 이어받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연구결과, 6가지 메가트렌드들(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9)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올해 2차년도 연구를 위해서 미래연구방법에 관한 콜로키움,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과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등을 위한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전문가조사, 정책자문회의, 정책협의회, 전문가워크숍 등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올해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첫째,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측정결과를 합산하여 6.0이상 나온 변수들을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추출하였다. 전문가조사 자료 재분석결과,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모두 6.0이 넘는 결과를 보여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추출하였다. 이어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앞에서 추출한 26가지 환경트렌드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해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트릭스 표에 의한 단일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6가지 환경트렌드 변수들이 각각 어떠한 환경트렌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국내 각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정책들을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로 나눠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의 전 정책분야에 걸쳐 부서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우리나라에 비해 사회문화적 여건이 앞선 선진국과 사회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나라를 모두 포함해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사회문화적 여건이 앞선 선진국으로는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의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제시하였고,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여건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로는 뉴질랜드와 일본의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 분석에서는 사회통합, 민주적 권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 등을 중심적인 정책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2. 정책적 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둘러싼 중장기 미래사회 환경을 미리 전망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환경에 대해 사전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사회”가 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년도에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전년도 연구를 이어받아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 정책의 비전, 전략,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앞의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외에 교육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등 청소년 정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과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결과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강화가 필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양극화사회와 위험증가’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또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양극화 문제는 청소년 성장발달과정에서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여 청소년 성장발달과정에서의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도입되어 시행중인 보육료, 양육수당제 도입에 이어 청소년들의 발달상황에 적합한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청소년 수당제의 목적, 효과, 대상연령, 재원마련방안, 지급방법, 지급시기, 외국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급방법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청소년 수당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의 발달에 맞는 물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의 발달에 맞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쿠폰을 지급하는 방법 등등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일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아동복지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정책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보육료, 양육수당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 청소년 수당제의 제시가 다소 이른 제안일 수도 있지만, 향후 20여년간의 사회발전을 고려하여 청소년 수당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 수당제의 실시에 대한 검토 및 실시는 향후 미래 청소년들의 양극화 문제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용 \ 일정	2015년~2017년	2018년~2020년	2021년~
청소년 수당제에 대한 연구 수행	→		
청소년 수당제에 대한 정책적 실시방안 마련		→	
청소년 수당제 실시			→

2) 청소년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등)의 실질적 활성화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또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의 미래 사회공동체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청소년들의 미래 사회공동체성을 담보하는 데는 자원봉사, 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이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앞의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도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 나눔활동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앞의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에서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활동은 나눔활동 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속에서 소극적, 형식적, 시간채우기 식으로 참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나눔활동이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자원봉사, 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나눔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나눔활동이 사회 이외에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눔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동기에 대한 파악, 배려에 대한 교육, 나눔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평가 등 전반적인 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나눔활동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질적 활성화는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용 \ 일정	2015년~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질적 활성화 실시			→

3)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

학교는 청소년들이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곳임과 동시에 가정, 또래관계 등과 함께 청소년들의 사회화 기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런데,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학교환경 중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다.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 사회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학교 내 교과담당 교사들 이외에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지도하고 함양할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생활지도사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학교 내 생활지도사는 청소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교내외 여러 청소년 인성 및 사회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진로교사 등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검토도 이뤄야 할 것이다. 이후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과학습 외에 여러 체험학습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할 때, 학교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은 향후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내용 \ 일정	2015년~2016년	2017년~2019년	2020년~
학교내 생활지도사제도 시행에 대한 연구 수행	→		
생활지도사제에 대한 정책적 실시방안 마련		→	
학교내 생활지도사제 실시			→

4) 신뢰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저신뢰사회와 갈등증가’가 향후 미래사회 청소년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다.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예견되는 저신뢰 상황을 타개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신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신뢰의 개인적,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뢰에 대한 교육 등은 앞에서 제시한 생활교사 등이 담당하여 시행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기관에서 신뢰를 주제로 개발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뢰에 대한 교내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실시는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내용 \ 일정	2015년~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
신뢰향상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방안 마련	→		
신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신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5)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또래환경 변수로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가 향후 미래사회 청소년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다. 또한 이들 트렌드 변수들은 각각 다른 환경 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거쳐,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그리고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화 기제 중의 하나인 또래관계가 미래사회에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 또래관계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우선 좋은 친구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관계, 부모들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관계,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관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좋은 친구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친구 만들기, 좋은 친구 되기 등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연구도 같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널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실시는 청소년들의 미래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용 \ 일정	2015년~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 실시	→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6)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학교환경 변수로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향후 미래사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사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대간의 갈등 및 통합의 약화는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세대간 이해 및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어 이의 일환으로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을 통해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용 \ 일정	2015년~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대한 연구 실시	→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7)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직접적으로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전망되었다.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가 예견됨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소통합리성 증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소통합리성 증진에 대한 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통합리성 증진에 대한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에서 나눠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통합리성 증진에 대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는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내용 \ 일정	2015년~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
소통합리성 증진에 대한 연구 실시	→		
소통합리성 증진에 대한 교육실시방안 마련		→	
소통합리성 증진에 대한 교육 실시			→

다음으로 이상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 정책의 비전, 전략, 과제를 설정, 제시하였다. 우선 미래사회 청소년정책의 비전은 '행복한 청소년, 선진미래 창조'로 설정하였다. 이 비전을 달성할 전략으로는 기회균등 강화, 공동체성 강화, 신뢰 강화, 소통합리성 증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점 과제로는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 청소년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등)의 실질적 활성화,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 신뢰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의 일곱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비전	행복한 청소년, 선진미래 창조
전략	기회균등 강화 / 공동체성 강화 / 신뢰 강화 / 소통합리성 증대
과제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 청소년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등)의 실질적 활성화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 신뢰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

참 고 문 헌

[참고 문 헌]

- 경찰청(2014). 2014 경찰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2014). 2014 고용노동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국가보훈처(2014). 2014 국가보훈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2014). 2014 교육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국민권익위원회(2014). 2014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국방부(2014). 2014 국방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2014). 2014 국토교통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김경동 (2002). **미래를 생각하는 사회학**. 서울: 나남.
- 김기현, 장근영, 강홍렬 (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I-총괄분야 :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기현, 조혜영, 장근영, 이창호, 고원, 강홍렬 (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종합보고서**. 한국: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범수 (2009). 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6, 15-44.
- 김은지 (2011). **2011 세계미래학회를 통해서 본 미래연구방법론과 정부 미래연구 동향**. 젠더리뷰, 22 (2011년 가을). 74-80.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13-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숙 (2005).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초중등학교의 미래**.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14). 2014 농림축산식품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농촌진흥청(2014). 2014 농촌진흥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맹용길 (1997). **미래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문화재청(2014). 2014 문화재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미래창조과학부(2014). 2014 미래창조과학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방송통신위원회(2014). 2014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2014). 2014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법무부(2014). 2014 법무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배규한(2000). **미래사회학-미래연구와 21세기 설계**. 서울: 나남출판사.
- 산림청(2014). 2014 산림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산업통상자원부(2014). 2014 산업통상자원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소방방재청(2014). 2014 소방방재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식품의약품안전처(2014).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안전행정부(2014). 2014 안전행정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 2014 안전행정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외교부(2014). 2014 외교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유현숙, 이정미, 최정윤, 임후남, 권기석, 서영인, 류장수 (2011).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201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13-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선, 홍사훈 (2010).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통한 정신지체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 관한 사례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4(2), 21-38.
- 이세준, 이윤준, 홍정임 (2008). **통합적 미래연구방법론의 탐색 및 적용**. 서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이종원, 이경상, 김기현 (2012). **경제사회지표 변화 연구-청소년정책 부문**.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청(2014). 2014 중소기업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조남익(2012). 청소년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탐색적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4(4), 93-111.
- 최항섭(2014).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방법론**.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항섭, 강홍렬, 장종인, 음수연 (2005).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 통계청 (2012). **2012 청소년통계**. 대전: 통계청.
- 통일부(2014). 2014 통일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

- 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특허청(2014). 2014 특허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하연섭 (2005). **지식정보화 사회와 교육의 미래**.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해양수산부(2014). 2014 해양수산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허창덕 (2012).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분석. **재활복지**, 16(2), 57-80.
- 환경부(2014). 2014 환경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Bronfenbrenner, U. (1992).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이 영(역)(1995). **인간발달 생태학**. 서울: 교육과학사.
- Denstad, F.Y.(2009). Youth Policy in Europe. In: F.Y. Denstad, Youth Policy Manual: How to develop a national youth strategy. 21-40.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European Commission(2008). Support of Health-Enhancing Physical Activity.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09).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12) EU Youth Report : Status of the situation of young people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14). The European Entrepreneur Exchange Programme.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Support Office. European Commission.
- 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2008). National Youth Development Policy. Headquarters for Youth Development.
- Mats Lindgren and Hans Bandhold(2003), Scenario Planning: The Link Between Future and Strategy.
- Miller, Riel. (2003). *The Future of the Tertiary Education Sector: Scenarios for a Learning Society*. Paper prepared for the OECD/Japanese Seminar on the Future of Universities, Tokyo,

Dec. 11-12, 2003.

Ministry of Youth Affairs(2002). Youth Development Strategy Aotearoa : Action for Child and Youth Development.

Titley, G.(2008). The future of the Council of Europe youth policy: AGENDA 2020. 8th Council of Europe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 Background document. Council of Europe

부 록

- 부록 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
(복지/건강)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전·보호/비행·범죄)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3.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
(교육/진로·직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4.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
(활동/권리·참여))에 대한 전문가 조사

부록 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에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한 후, 이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들의 출현가능성과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2014년에는 작년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1)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와 (2)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미래 청소년 복지(취약계층청소년지원(가출청소년지원, 학업중단청소년지원, 북한이탈·다문화청소년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역아동센터운영, 드림스타트사업운영, 디딤씨앗통장지원, 가정보호지원, 시설보호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상담지원(상담서비스, 청소년전화 HelpCall388, 청소년동반자 YC프로그램,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CYS-Net, 취약청소년자립지원 두드림존 DoDreamZone 등)) 정책분야와 미래 청소년 건강(체격·체력, 영양·비만, 음주·흡연, 정신건강 등) 정책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 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년 2013년 연구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와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정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 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또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또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 통합역량의 약화(S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1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1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1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14)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작년 2013년 연구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와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의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의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출현가능성과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32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00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77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8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4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2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67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70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3.83	3.72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00	4.28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07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9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80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00	4.19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84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0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37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9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4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14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90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00	3.84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16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78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00	3.96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75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I.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2013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향후 26년간 (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다음의 응답방법에 따라 선생님의 고견을 아래 빈칸에 직접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수명의 구체적 내용은 앞의 기술내용 참조.

<응답방법>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2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1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해당 빈칸에 0으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1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2로 기입

독립	종속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illegible]

II.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2013년 연구결과인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미래 청소년 복지(취약계층청소년지원(가출청소년지원, 학업중단청소년지원, 북한이탈·다문화청소년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역아동센터운영, 드림스타트사업운영, 디딤씨앗통장지원, 가정보호지원, 시설보호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상담지원(상담서비스, 청소년전화 HelpCall388, 청소년동반자 YC프로그램,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CYS-Net, 취약청소년자립지원 두드림존DoDreamZone 등)) 정책분야와 미래 청소년 건강(체격·체력, 영양·비만, 음주·흡연, 정신건강 등) 정책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선생님의 고견을 아래 빈칸에 직접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나라도, 짧게라도 적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지급수당

-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써주셔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에 의거해 정당하게 수집되는 것입니다.
- ▶ 보내주신 명세서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되며 보관되지 않고 파기됩니다.

부록 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에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한 후, 이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들의 출현가능성과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2014년에는 작년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1)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와 (2)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아동학대, 아동실종, 안전사고, 학교폭력,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업소, 인터넷중독, 성보호 등) 정책분야와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비행예방, 범죄예방, 교정교육, 피해자지원 등) 정책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 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년 2013년 연구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와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성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리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 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또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또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 통합역량의 약화(S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작년 2013년 연구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와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의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의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출현가능성과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32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00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77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8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4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2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67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70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3.83	3.72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00	4.28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07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9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80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00	4.19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84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0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37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9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4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14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90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00	3.84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16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78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00	3.96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75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I.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2013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향후 26년간 (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다음의 응답방법에 따라 선생님의 고견을 아래 빈칸에 직접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수명의 구체적 내용은 앞의 기술내용 참조.

<응답방법>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2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1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해당 빈칸에 0으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1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2로 기입

독립 \ 종속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종속 독립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II.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2013년 연구결과인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아동학대, 아동 실종, 안전사고, 학교폭력,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업소, 인터넷중독, 성보호 등) 정책 분야와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비행예방, 범죄예방, 교정교육, 피해자지원 등) 정책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선생님의 고견을 아래 빈칸에 직접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나라도, 짧게라도 적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지급수당

-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써주셔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에 의거해 정당하게 수집되는 것입니다.
- ▶ 보내주신 명세서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되며 보관되지 않고 파기됩니다.

부록 3.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에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한 후, 이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들의 출현가능성과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2014년에는 작년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1)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와 (2)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미래 청소년 교육(학업성취, 학교생활만족, 교육복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농산어촌학생교육지원, 다문화학생교육지원, 탈북학생교육지원 등) 등) 정책분야와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직업역량 개발, 일자리 마련, 고용촉진 등) 정책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 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년 2013년 연구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와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정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 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또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또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 통합역량의 약화(S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1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1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1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14)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작년 2013년 연구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와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의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의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출현가능성과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32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00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77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8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4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2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67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70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3.83	3.72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00	4.28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07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9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80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00	4.19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84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0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37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9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4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14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90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00	3.84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16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78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00	3.96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75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I.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2013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향후 26년간 (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다음의 응답방법에 따라 선생님의 고견을 아래 빈칸에 직접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수명의 구체적 내용은 앞의 기술내용 참조.

<응답방법>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2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1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해당 빈칸에 0으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1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2로 기입

종속 독립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 II.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2013년 연구결과인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미래 청소년 교육(학업성취, 학교생활만족, 교육복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농산어촌학생교육지원, 다문화학생교육지원, 탈북학생교육지원 등) 등) 정책분야와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직업역량 개발, 일자리 마련, 고용촉진 등) 정책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선생님의 고견을 아래 빈칸에 직접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나라도, 짧게라도 적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지급수당

-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써주셔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에 의거해 정당하게 수집되는 것입니다.
- ▶ 보내주신 명세서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되며 보관되지 않고 파기됩니다.

부록 4.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에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한 후, 이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들의 출현가능성과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2014년에는 작년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1)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와 (2)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미래 청소년 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교류활동지원 등)) 정책분야와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권리증진, 참여활성화) 정책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데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 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년 2013년 연구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와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정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 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또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또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 통합역량의 약화(S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1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1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1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14)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작년 2013년 연구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와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의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의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출현가능성과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청소년 정책적 중요성
		평균	평균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32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00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77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8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4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2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67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70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3.83	3.72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00	4.28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4.07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9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80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00	4.19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84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03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37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92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4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14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90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00	3.84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16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78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00	3.96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75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I.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2013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향후 26년간 (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다음의 응답방법에 따라 선생님의 고견을 아래 빈칸에 직접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수명의 구체적 내용은 앞의 기술내용 참조.

<응답방법>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2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1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해당 빈칸에 0으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1로 기입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빈칸에 -2로 기입

독립 \ 종속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종속 독립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 II.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2013년 연구결과인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미래 청소년 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교류활동지원 등) 정책분야와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권리증진, 참여활성화) 정책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선생님의 고견을 아래 빈칸에 직접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나라도, 짧게라도 적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지급수당

-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써주셔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에 의거해 정당하게 수집되는 것입니다.
- ▶ 보내주신 명세서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되며 보관되지 않고 파기됩니다.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호·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장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장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해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해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해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중상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지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 14-R49 2014년 도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Ⅰ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Ⅱ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자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Abstract

The Prospect for the Future of Youth Environment Change and Youth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youth up to 2040 and further to suggest the vision and directions of youth policies. In 2013's first-year study, youth environmental trends for coming years were presented and in this 2014 study, prospects of future youth environmental changes, status of domestic youth policies and other countries's youth policies will be looked into and based on the analysis of study findings, the visions and prospects of future youth policies will be suggested.

In this 2014 second year study, 29 variables on environmental trends were selected; correlations among these 29 variables were analyzed and a single scenario from the analysis was induced. Analyzing the resources related to the nation's youth policies categorized to youth welfare, health, safety, protection, crimes,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and social activities, each topic was examined in detail. Next, the youth policy cases found in EU, the Council of Europe, New Zealand and Japan were studi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visions and problems of future youth policy were set forth.

In accordance with the study, the vision of future youth policy was set as 'happy youth, advanced future society.' Reinforcement of equal opportunities, community value, trust and rational communication were presented as strategies for non-transmission. And seven tasks that include adoption of payment service for youth, development of youth social distribution activity(volunteering, contribution, etc), enforcement of life instructor institution in school,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youth educations programs on trust and friendship, programs to promote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and educational programs on rational communizations were set forth.

Key word: trend analysis, scenario analysis, prospects on future youth environmental changes, future youth policy.

연구보고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미래 청소년 비전, 전략, 과제에 대한 전망**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2) 503-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09-0 93330